

우리
연결
공감
응답

2024 여성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2024.07.02-03. 전북 무주 태권도원



2024 여성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2024.07.02-03. 전북 무주 태권도원

주최 |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 | 한국여성재단, 월드비전, 우양재단, 베리훅, 동구밭

목차

여는 글	4
참여 단체	5
일정표	9
함께 체크인	12
기조 발제 1 -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 대응 운동	13
기조 발제 2 -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34
5분 스피치 1.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49
5분 스피치 2.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60
5분 스피치 3.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71
5분 스피치 4. 이주여성, 차별과 경계를 넘어	82
5분 스피치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93
5분 스피치 6.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105
5분 스피치 7. 통폐합 정국에서 씬터운동의 비전	116
5분 스피치 8.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127
연대와 교류의 시간	138
모듬토론 진행 안내	139
모듬 토론 결과	141
여성폭력대응활동가 전국워크숍 선언	200
준비팀 진행 과정	204
준비팀 및 현장스텝	206
장소배치도	207
비상연락망	209
사후 링크 공유	210

여는 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여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고,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여성폭력 생존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사회의 폭력과 차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맞서 싸웠다. 특히, 최근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한국 사회 내 여성혐오와 연일 보도되는 여성살해 사건 등 굵직굵직한 여성폭력 관련 이슈로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금,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나온 길,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 행사를 기획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그리고 이주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여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현장 단체 총 502 개소가 결성한 연대체이다. 전국에서 2천여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다양한 구조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전체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모두의 활동이 여성폭력 생존자를 지원하고,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지만,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아갈 힘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하였다.

워크숍의 목적

- 여성폭력에 대한 비전, 관점, 정책, 예산이 부재한 현황에 맞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대응 활동을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이주, 장애, 긴급지원, 원스톱 지원 분야 실무자들이 모여 현장 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확인하고 지지의 장을 이룬다.
- 한국여성인권향상의 역사, 현장성, 협력적 네트워크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내고, 미래 활동을 위한 주제별 토론 및 향후 과제 논의를 통해 개별기관, 개별협의회의 어려움과 쟁점을 교류하면서, 향후 여성인권운동의 관점과 방향을 모색한다.
- 다르지만 닮아있고, 닮았지만 각기 다른 여성폭력 대응 현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연대를 통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 연결된 힘으로 현실을 바꾸는 여성인권운동 활동가의 정체성과 삶의 비전을 나눈다.

참여 단체

(주최 _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광주 YWCA 한빛타운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광주여성의전화
강서가족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자활지원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샘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US	구세군정다운집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고양시여성의쉼터	군산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 YWCA 솔빛타운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광주 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쉼터	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인하우스
누림터	막달레나공동체
다감복지협회 부설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산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단디이음	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 힘내	사랑의등지
대구여성인권센터 생생이랑	사랑이샘솟는집
대구여성인권센터 위풍당당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대전 YWCA 가족쉼터	새길공동체 해봄터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날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대전여민회 다힘상담센터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동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새힘터	서인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두레방 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뜨락	성남여성의전화
마음놀이터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소망의집
속초 YWCA 가정폭력상담소	속초 YWCA 햇살의집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울산성가족상담소 부설 평안의집
수원여성인권돋음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수지의집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울타리
시흥여성의전화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쉼터	이레성폭력상담소
신나는디딤터	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아름다운집	인권희망 강강술래
아리솔	인권희망 강강술래 달빛공방 자활지원센터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인권희망강강술래 희희낙낙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안양 YWCA 가정폭력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넝쿨
안양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여성인권센터 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인권티움 부설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성자활지원센터 Doing
여성인권티움 부설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여성인권티움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여성자활센터 해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쉼터민들레
여수새날상담센터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쉼터불턱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용인시여성의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여성인권연대 아동·청소년지원센터'반짝'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지음가정상담소	통영 YWCA 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파주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찬누리	평화여성의집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포천지부 희망가족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하동성가족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쉼터	한국여성의집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인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충북여성인권부설 상담소 늘보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소리회 두레방
충북이주여성상담소	한소리회 헤아림
충북해바라기센터	한소리회 희망터
충주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탁틴내일	행복원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일정표

7/2(화)			
시간	내용	진행	장소
'우리' 워크숍			
-	-	- 전체 진행: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13:00 ~ 14:00	- 출석 체크 - 전시 관람		도약센터 3층 대강당 로비
14:00 ~ 15:00	1. 함께 체크인 - 오리엔테이션 - 인사 나누기(아이스 브레이킹)	- 인사 나누기: 최현진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도약센터 3층 대강당
15:00 ~ 15:30	쉬는 시간 *숙소 입장 가능	-	-
15:30 ~ 17:00	2. 기조 발제 1)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 대응 운동 2)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1)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도약센터 3층 대강당
17:00 ~ 17:30	쉬는 시간	-	-

7/2(화)			
시간	내용	진행	장소
17:30 ~ 19:00	3. 5분 스피치 1)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2)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의 과제 3)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4) 이주여성, 차별과 경계를 넘어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6)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7) 통폐합 정국에서 씬터운동의 비전 8)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1) 나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보호시설협의회 2)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3) 도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권역 대표 4)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5) 김양순 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6) 이나리 진해여성의전화 대표,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7) 김혜옥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새날' 원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8) 박현경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소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도약센터 3층 대강당
'연결된' 워크숍			
19:00 ~ 22:00	4. 연대와 교류의 시간 (저녁 식사 및 연회)	김수민 여성인권센터 보다 사무국장, 윤정숙 지음가정상담소 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평원관

7/3(수)			
시간	내용	진행	장소
7:45 ~ 9:00	아침 식사 등 (비건식 391 호에서 나눠줄 예정)	-	식사동
'큰 걸음' 워크숍			
9:00 ~ 12:00	5. 모듬토론 및 피날레 퍼포먼스	김혜정/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T1 경기장
12:00 ~	해산 *방장은 T1 경기장 접수대에 방키 반납 ※ 점심식사 제공하지 않음	-	-

함께 체크인 _ 인사 나누기 / 아이스 브레이킹

최현진 꿈누리장애여성폭력상담소 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기초 발제 1 -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 대응 운동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 대응 운동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토론주제]

- 1) 한국 사회는 변화했는가?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변화했다면 무엇이 변화했나, 변화가 막히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 막고 있나?

- 2) 활동가로서 올해 행복한가? _무엇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성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인 '나/우리'의 물음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늘 이야기의 순서

- ▶ 우리는 피해자 옆에 있는가?
- ▶ 우리사회는 변화하였는가?
- ▶ 생존자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가?
- ▶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 ▶ 우리, 활동가들은 행복한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우리는 피해자 옆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 생존자와 공감·지지·연대!

- ▶ 전국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연간 631,146건 피해생존자 상담·지원
2022년 가정폭력: 243,067, 성폭력: 292,945건, 성매매: 95,134건
* 출처: 지표누리-통합검색 (index.go.kr)
- ▶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대한 공격
 - “피해자가 어떤 여자인줄 알고 지원하느냐?”(1991)
 - “상담소가 피해자와 변호사에게 휘둘리고 있다”(2020)
- ▶ 여성주의 상담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을 지향한다.
 - 생존자의 역량강화 & 일상회복을 추구한다.
 - 여성/소수자의 경험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말하기대회 전시자료

'피해자 리더십' : 경험자가 갖는 다양한 힘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DIY가이드 보통의 경험』, pp18-32.

- ▶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피해 경험자.
- ▶ 성폭력 문제 해결의 목표를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도 피해 당사자.
- ▶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묻어두지 않고 꺼내 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은 **자신이 겪는 크고 작은 통증을 살피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
- ▶ 피해자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
- ▶ 피해자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존재.
- ▶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세상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것, **그 깨달음은 깊이 있는 삶의 통찰로 이어진다는 것**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인권의 명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싸워 얻은 것).
- ▶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

망설임과 두려움, 주저함, 혼란이 바로 우리의 힘. 그게 바로 피해자 리더십의 동력이고, 기회이며, 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존자 말하기 대회(2003~)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 이 공간의 약속 > - 한국성폭력상담소(2019 제정)

- ▶ 우리는 나이, 상근여부, 직책, 활동기간, 지원-피지원 관계 이전에 동등한 사람이며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 ▶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외모표현, 신체조건, 피부색, 병력, 장애, 연애와 결혼여부 및 형태, 임신출산여부 등에 관하여 '정상적, 이상적' 기준을 세워두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 ▶ 위와 같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활동함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 ▶ 신체접촉 친숙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며, 나의 접촉이 상대방에게 불편 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 ▶ 차별, 배제, 혐오표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제기 받은 사람은 적극 시정한다.
- ▶ 모든 활동에서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도구, 음식 등을 준비한다.
- ▶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의 태도로 함께 변화해간다.

우리사회는 변화했는가? -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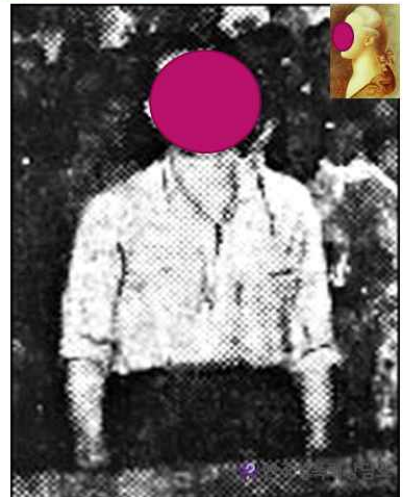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판 카사노바 박00 사건(1955)

“법은 보호 할 만한 정조만 보호한다”

- 현역 군 장교를 사칭한 박00(26세), 혼인빙자간음죄
- 1954~55년에 여대생을 비롯한 70여명 간음
- 박00의 변론
“결혼을 약속한 적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
“70명 중 단지 1명만 처녀”
- 1심 : 서울지방법원 법정(1955. 7. 22) → 무죄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
- 2심 : 서울 고등법원 → 징역 1년형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다”
- 3심 : 대법원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출처 :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fid=1999062870395)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1991~3)



한국여성운동의 여정 : 97년전 부터 활동해온 여성단체들 덕분에 여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소 활동

- 포괄적 여성운동의 기반 위에서 부문운동으로서 반 여성폭력운동
- 1927년, 근우회(한국 최초의 여성운동단체)
-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성폭력상담)
-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 1998년, 여성긴급전화1366(365일 24시간 위기상담 및 연계서비스)
- 2001년,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2004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 2004년, 해바라기센터(365일 24시간 상담, 치료,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 2017년,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2019년,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개소 등 ...



근우회(1927)

“조선 자매들이 단결하라” 첫 좌우합작 여성단체
(출처: 여성신문, 2019. 4. 1)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는 이제 봄이 되고 싶다”

- 다시 보는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글(1994) -

- “나는 많은 갈등을 했다. 이 문제를 나 혼자 물어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고발을 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집안의 반대, 친구들의 반대, 그리고 내가 정말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함, **그럼에도 그때 내가 대자보를 붙였던 것은 여기서 그냥 주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거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
- “사회는 썩고 부패해도 대학만큼은 이 사회에서 병들지 않고 아직까지 순수함과 지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그 배움을 몸소 실천하여 가르치는 사람, 최고의 스승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교수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것이다.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대학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어딘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얻어도 성희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 성희롱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희롱과 정면 대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나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힘을 얻었고, 나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가슴에 봄이 되고 싶다.** 그래서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출처 :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1994/2001), <성희롱사건 자료집, 정목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책서 下>, pp 1351-1353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변화

- ▶ 1994년 :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처벌강화 및 상담소·보호시설의 운영기준과 운영비 일부지원 근거 마련
- ▶ 1997년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 ▶ 1998년 : 여성긴급전화 1366개설(1년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 ▶ 2001년 : 전담부처 변경(보건복지부 ---> 여성부), 의료비 일부 지원
- ▶ 2004년 : **성매매방지법 제정**, 해바라기센터 운영(2005년 :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 2007년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 ▶ 2010년 :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규정 마련
- ▶ 2013년 : **친고죄 폐지**,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제도 등
- ▶ 2018년 : (#미투 이후)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불법촬영물 유포 시 삭제지원
- ▶ 2024년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은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 장관 임명해야” 권고(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평등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 폐지안

-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2023.11.21)"

- ▶ 성평등 비전 속에서 젠더폭력 대응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라!(2022. 10. 11)
 -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하라!!! (2023. 10. 30)
 - ▶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2023. 11. 21)
- "예산안 숫자 너머 사람을 보아라", "국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4년, 세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 2024년 3/11~22. UN CSW(제68차 여성지위위원회)

- 빈곤문제 해결, 성평등 달성, 여성역량강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10.3% 빈곤. 3/15 청소년 포럼
- 성평등, 여성, 여아 역량강화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공공 서비스,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

Welcome | UN Women - Headquarters

▶ 2023년 3/6~17. UN CSW(제 67차 여성지위위원회)

- 성별 디지털 격차 해소(휴대전화 소지율 남성보다 12%낮음), 디지털 시대의 교육 촉진,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교육)분야에서 여성은 소수자(인공지능 근로자의 22%)
-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위한 포용적 혁신과 기술변화 촉진, 안전한 온라인 공간조성 등 논의



▶ 2021년 3/15~26. UN CSW(제 65차 여성지위위원회)

- 공적분야에서의 여성 : 의사결정에 동등한 참여 - 폭력 근절, 성평등
- 전 세계적으로 의회 의원의 25%만 여성.

현재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성평등에 도달하려면 130년이 더 걸릴 것



생존자,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

"저는 당신과 끝없이 연대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나중에 올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눈감고 싶은 순간을 견디고 용기를 택한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바뀌는 중입니다." -Here for you에 올라온 글-



생존자들은 일상회복!
가해자들은 반성/사과/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가?

반(反) 성폭력운동의 주요 과제 - '강간죄' 구성요건 & 성폭력 2차 피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의 71.4%가 폭행,협박 없는 피해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출범 (2019년 209개 단체/2024년 403개 단체)



상담현장의 경험 & 목소리 강간의 62.5%가 폭행.협박 없는 피해(2023년)

- 전국 119개 상담소의 2022.1~12월까지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상담사례 **62.5%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피해** (* 2019년에는 71.4%가 폭행.협박 없는 강간)
-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 회유(21%), 강요(18.1%), 지위이용(12%), 속임(11.3%), 그루밍(10.0%), 괴롭힘(2.6%)순

<표> 직접적인 폭행.협박 유무 (단위: 건(%))

분 류	건(%)
직접적인 폭행.협박 있음	984건(20.7%)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음	2,979건(62.5%)
미파악	802건(16.8%)
계	4,765건(100%)

* 출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23) 21대 국회 토론회 자료집, p13
한국성폭력상담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 권고

제8차 한국정부 심의(2018. 2. 22), 제9차 한국정부 심의(2024. 5. 14)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

- 젠더에 기반한 폭력부분, 2024. 6. 3 (2024년 권고안 관련 토론회: 7.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 **강간의 정의에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를 포함시키도록 형법 개정**,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한 비합리적 성행위를 포괄하도록 고려할 것.
-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담조건 기소유예 폐지하여 화해와 중재보다 기소가 우선시 되도록 할 것.
- ▶ 젠더기반 폭력의 범죄성 인식개선 미디어 캠페인, 피해자에 대한 낙인 찍지 아니하며,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여성 보호, 법원이 피해자의 의료기록, 성생활 이력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 금지, 가정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해 신고 장려할 것.
- ▶ 판사, 검사, 경찰관 및 기타 법 집행 공무원 대상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
- ▶ 국가 운영 쉼터 강화, NGO가 운영하는 쉼터에 적절한 보조금 지원, 쉼터 네트워크 확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적절한 자금 지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재정지원, 교육, 전문훈련, 소득 창출 기회, 저렴한 주택,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을 변경하도록 지원할 것.
- ▶ 기술을 통해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공익 소송 캠페인 전개,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벌하는 조치를 강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유통업체가 플랫폼에서 범죄 콘텐츠를 신고,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할 것.

한국성폭력상담소

222개 단체, 연대의 힘!

폭행.협박 증명요구 → 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아카이빙 블로그 : <https://change297.tistory.com/>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2023. 02. 2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22개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아카이빙 블로그(<https://change297.tistory.com/>)



-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다양한 활동을 모아가는 아카이빙 활용
- ▶ 2021.3.8 세계여성의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게임 오픈
- ▶ [이상한나라의강간죄 : 당신의 선택과 판결은?] wonderfullaw.korea.wff
- ▶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에서는 각 사건들이 제시될
그 사건을 살펴본 후, 이 범죄에 대한 판결을 당신의 판단으로 직접 내려보고, 결과를 실제 판결과 비교해보기!
- ▶ 평범한 사람도 직접 체험해보는 성범죄 재판!

한국성폭력상담소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2004년) 최초로 2차 피해 관련 국가책임을 인정

<https://box.donut.org/box/ksvrc/donate-milyang> ("밀양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공개 / 지원단체의 모금운동, 2024년 6월)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

- ▶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생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발족(2004. 10)
- ▶ 고 최진실님의 기부로 초기 활동기금 마련
- ▶ 각 상담소에서 사건지원 모니터링 한 결과를 시민감시단에 추천 & 심사
- ▶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매월 1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여성인권 디딤돌.걸림돌> 발표 → 언론보도,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공문 발송
* 자료출처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 자료집(2005~2024)

한국성폭력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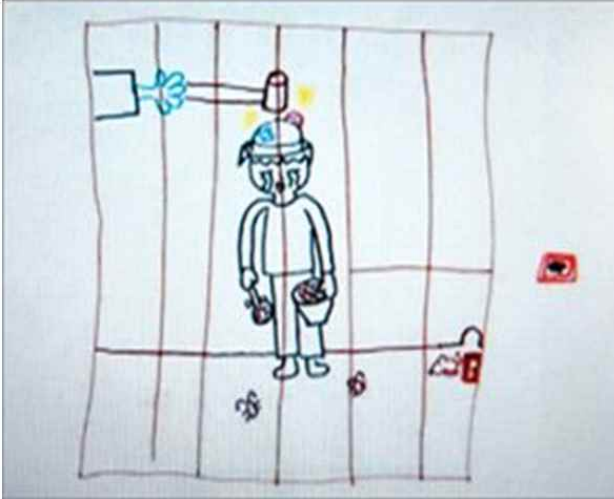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밀양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donus.org)

- ▶ 성폭력 피해 이후 20년, 피해생존자의 삶
 - 2004년 피해
 - 2024년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
 - 느닷없이 소환되어 소비되고 있는 피해자의 삶
- ▶ 피해자가 마주한 고난을 성큼! 뛰어넘을 수 있도록
 - “저, 단단해졌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활동가들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의 말)
 - 후원금은 전액 피해자의 생계비로 사용예정 (* 2024. 6. 28일 오전 10시 현재 3,045명, 118,100,799원 모금)



조두순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국가책임 인정(2008~9)



직장내 성추행 피고인이 직장동료 120명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사례

▶ 출장길에 잠든 직원을 강제추행한 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는 직장 동료들을 호도하여 약 120명으로부터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오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1412 판결)

▶ 근무지에서 근무시간에 사실관계가 드러난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탄원서 써달라고 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한국성폭력상담소

우리, 활동가들은 행복한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

- ▶ “1990년대 후반, 처음 상담원교육 받을 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 옆에서 상담·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지난 25년동안 이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행복합니다^^”
- ▶ “갈수록 높아져가는 피해자분들의 기대수준과 다양한 요청, 민원들에 난감할 때가 있어요”
- ▶ “소진(burnout)되었어요” : 명상, 요가, 원예치료, 산행, 사우나, 정기적 운동, 여행 등으로 재충전.
- ▶ 세상의 잣대(돈, 명예 등)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세상을 바꾸는’ NGO 활동가의 삶!
“현장에서는 늘 가슴이 뛰어요. 평생 활동가로 살려구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우리의 연대가 만들어가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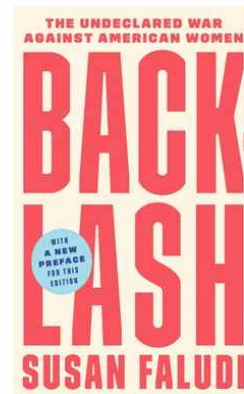
- ▶ 퍼즐의 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
“내가 없으면 완성할 수 없는 그림”
(이화·유한김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수료식, 장필화, 2024. 6. 27)
- ▶ 어두울수록
빛나는 우리들의 연대!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2024년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백래시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기

- 우리의 역할과 자세

- ▶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 터져 나왔다. 이는 여성들이 결승선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여성들을 멈춰 세우는 선제공격이다“
- 수잔팔루디, 1991.
- ▶ 반성폭력 법, 정책, 운동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고,
문제의 요인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정책화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또 문제를 보고... 단단한 연대 속에서!!!
- ▶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깊게 생각하며, 더 뜨겁게 토론하고,
더 굳건히 연대하는 시간이 필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 ▶ 우리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사회의 기반
- ▶ “사회는 절대로 저절로 변화하지 않는다. 함께 문제제기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동영상(2024)
#Invest in Women, Accelerate Progress
<https://www.youtube.com/watch?v=ab05lvsibW8>



우리는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폭력 대응 현장활동가!
태산 같은 '자긍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조 발제 2 -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주제]

- 1) “범죄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송란희_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지금 이곳]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024년 7월 2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현장은 너무 불안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 2024 Zin.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전 욕구 조사>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이란 무엇인가? 통합지원의 방향은?
여성폭력 지원기관은 앞으로 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관련 법률의 제정, 의미와 한계

1994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
20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21 스토킹처벌법 제정
2022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상담소, 쉼터, 1366 등의 법적 근거(국가 책무) 마련
현장 단체/상담소/쉼터 등의 대부분이 법률 제정 이후 개소
관련 법에 따라 예산 출처, 운영 지침이 다소 상이함

여성폭력

- 피·가해자간 관계 중심;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교제폭력)/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시대에 따라 그 범주가 유동적, 임의적 구분.
- 폭력 유형 중심: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 매개 중심: 디지털성폭력
- 피해자의 정체성 및 조건 중심: 이주여성, 장애여성, 청소년, 아동, 성소수자

배타적 구분 불가.

그러나 관련 법률이 순차적으로 별도 입법되면서 배타적 구분 가능한 것으로 착시.

입법 당시 '미발견된' 혹은 '비호명된' 폭력은 비가시화·'사각지대' 발생.

'호명된' 혹은 '주호소된' 폭력피해에 따라 지원 제도 및 정책 다름.

* 연장선에서 '복합피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5년마다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 법안은 2023. 11. 29. 제102회 국회(제3차) 본회의를 거쳐 2023. 12. 1. 공포된 법률이다. (법률 제17851호)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톱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시행일: 2024. 9. 27.]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통합정국] “통합”을 찾아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의거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수립(2020-2024)



그간 정책 평가

성과: 여성폭력 유형별 법령 제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반 확대, 여성폭력 처벌 제도 개선,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한계와 문제점: 단기적 대응 중심의 대책에 따른 낮은 정책 체감도, 여성폭력 유형 다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기반 미흡

정책 환경 분석: 여성폭력 문제는 성차별 문제라는 인식 확산, 여성폭력 범치는 증가세, 유형과 양상은 다변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시스템 변화 요구, 성평등한 조직문화 등 일상의 변화 요구,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 수요 증대

2 비전, 목표, 그리고 전략과제

비전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3대 목표

- ▶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
- ▶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을 진문화, 내실화한다.
- ▶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4대 전략과제	정책과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2. 신종 여성폭력 대응 강화 3.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 강조 강화 4.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피해자 중심의 영사 사법체계 운영	1.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2. 영사사법체계의 2차 피해 방지 3. 재범 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1.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 2. 민간·공공부문 등 조직 내 여성폭력 근절 3. 여성폭력 피해 지원서비스 진문화 4. 여성폭력 예방·홍보 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애소를 위한 기반 마련	1.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2.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연계·협력 강화 3.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여성폭력 피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유형에 따라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는 지원시설 •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상담소 확대 및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IT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대응

국정과제 속의 여성폭력 ‘흔적’ 찾기

- 다음 국정과제 중 일부(2022년)
- 63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64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성희롱, 성매매는 언급 없음
-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젠더 X, 여성 X
- > '5대 폭력';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정책환경 분석*과는 다른 국면 전개

* 여성폭력 문제는 성차별 문제라는 인식 확산, 여성폭력 범죄는 증가세, 유형과 양상은 다변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시스템 변화 요구, 성평등한 조직문화 등 일상의 변화 요구,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 수요 증대

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폭력 통합 지원' 관련 정책 추진 상황

일시	내용	추진 단위
2021. 0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2. 0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이하 내용 포함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
2022. 09.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을 위한 이젠센터(E-GEN) 개소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6조의 2(2021. 12. 제정)에 근거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 ▲젠더범죄예방사업실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실 2센터 조직으로 구성 - 자치경찰인력(APO)를 배치하여 피해자 상담 및 수사 연계 포함	부산시

2021. 08. 1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1. 08. 1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1. 08. 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09.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09.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09.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09.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09.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09.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2개 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팀' 구축.	경기도

2023.	국정과제에 따라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 5대 폭력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예시) 스토킹 동반 가정폭력, 성폭력 동반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동반 성매매 등	여성가족부
2023. 01.	경기도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선정, 2026년까지 31개의 시군에 확대할 계획. 이에 따라 성과 평가를 위해 연구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확대방안> 진행	경기도
2023. 04.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통합슬루션 지원단」 설치 △ 통합사례관리 지원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2023. 0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진행됨.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해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서 지원 실적 중 가정폭력상담 비율이 최근 7년간 58.4%로 기탁상담비율이 높은 점,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의 경우 정원대비 입소를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치료비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의 3년 평균 실행률이 낮은 점을 들어 예산 감축 필요성 언급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실제 수혜자는 여성폭력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을 언급.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의 중복피해 경향 및 폭력의 순환성 문제를 고려할 때 분리하여 추진하지 않고,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연계하는데...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는 전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결정되어야 함."	기획재정부

2023. 08. 29.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 - 전년대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감축 - 여성가족부,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	정부
2023. 09. ~	지자체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통합상담소' 전환, 인력 감축 등에 대한 비공식적·공식적 통보 전달됨	여성가 족부, 지자체
2023. 1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업무협약 체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전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임을 발표. 2024년 7월 개소 예정.	법 무 부, 서 울시
2023. 12.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가)'를 내년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 - 도내 104개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상담, 지원 관리,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합적으로 관리 -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 운영 - 피해 지원 대상을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확장	경기도

2024.	운영기관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통합솔루션지원단의 기능에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기능을 추가하여 시범 운영 계획 수립 *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기능 △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 현안 이슈 중사자 교육 △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여성가 족부
2024. 02.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 계획임을 발표	여성가 족부
2024. 04.	22대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여성 국회의원은 모두 60명 (20%)으로 역대 총선 최다 기록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8%)에 한참 못 미침.	
2024. 04.	'여성 5대폭력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5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이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 목적과 방식이 분명치 않다는 점 지적 - 여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구체적이지 않아 통합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의문 제기 -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란 피해자 입장에서 단일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증장기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현재 개별법 체계하에서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피해자 지원 수준과 내용을 균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	국회입 법조사 처

2024. 04.	<p>'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하고, 통합지원으로 틈새 메운다.' 보도자료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6 통합지원단 확대('23년 2개소→'24년 5개소)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교육 - 통합상담소도 확대('23년 30개소→'24년 54개소)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통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각 시행령 개정 추진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와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합 실시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개정('24.3.26. 개정) 	여성이 죽부
-----------	--	-----------

통합상담소? 통합적 관점? 통합지원?

통합

1.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2.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함. 또는 그런 일.
3.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 또는 그런 일.

지역 성폭력상담소가 한 개소, 가정폭력상담소 두 개소-> 하나의 상담소로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통합상담소
 지역의 성폭력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 통합상담소

???

통합상담소? 통합적 관점? 통합지원?

-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그 업무로 함.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범위와 비교하면 가정폭력을 지원하는지, 성폭력을 지원하는지, 이 모두를 지원하는지가 주요한 차이점임. 행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합친 형태.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나, 법무부 예산이 출처인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와 달리, 여성가족부 예산이 출처인 가정폭력상담소가 행정편의상 통합상담소의 기본 골격이 되어왔음.

-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그 외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의 ‘통합 지원’을 의미할 수도 있음. 특히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양상임(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탑 솔루션 센터). 그 외 현장동행 방문, 재발우려가정 방문관리/담당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지역자원을 연계, 사례관리하는 경우 등도 통합지원으로 칭하기도.

- 특정 지역 내 각종 피해 지원 기관의 상담이나 인식 개선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을 ‘통합 지원’이라 칭하기도 함(경기도).

통합상담소? 통합적 관점? 통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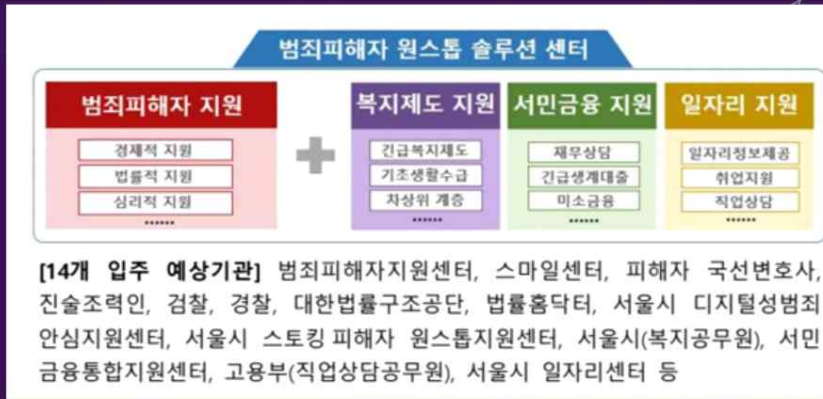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의 경우 개별법에 규정된 정의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피해가 존재함.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처럼 새롭게 이름 붙여지는 피해도 존재. 데이트폭력의 경우 개별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피해자 지원 제도 내에 일부 포섭되어 있는 상황임. 피해자 지원 체계는 관련 제도를 기반으로 하나 피해자의 욕구는 관련 제도에 따라 제한되지만은 않으므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가 ‘통합 지원’에서 주로 고려되는 폭력 피해 유형이나,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상담소(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의 경우 현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통합 지원’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 ‘**통합적 관점**’은 이러한 폭력들이 젠더에 기반하여 다양한 양태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피해를 이해하고, 양태별 피해 지원 체계가 균질하게 갖춰지도록 하며,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 이슈파이팅, 정책 개선, 연구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방향 모색] 우리는 왜 모였는가

1. '통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야



<우리의 질문>

- 범죄피해자는 누구인가?
-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인가?
- '어떤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인가?
- 변화를 만들수 있는 통합인가?

2.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감시', '예산 감시' -> '대안 제시' 필요한 때

정부 정책 및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지켜보는 것

*처벌, 보호, 예방 포괄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중
- 관련 예산-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현재 기재부 예산안 편성 단계)
-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5 예비조사, 2027 본조사 실시(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중단)
- 여성폭력 국가통계- ?
- 상담소, 시설 3년 평가-평가지표

3. 우리들이 걸어온 길 위에서

-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폭력이라 명명해 왔던 시간
- 입법운동을 통해 일정 정도 범죄화,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의 근거/체계 마련

=> 여성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국가의 책무로 만들어 왔던 시간

- 여전히 우리는, '범죄'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 피해 지원
- 여전히 우리는, 피해자 지원, 그 이상을 생각&실천



아무것도 없었던 때와 ‘무엇’이 있는 지금,
30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다른가.

통합 정국의 미래?

NGO->NGO>GO->NGO<GO->GO?

현재의 조건으로
미래를 상상하지 말 것

15회 여성인권영화제 슬로건(2021)

우리는 조건을 바꾸는 사람들!

5 분 스피치

1 |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나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2 |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의 과제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3 |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도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권역 대표

4 | 이주여성, 차별과 경계를 넘어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 /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5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김양순 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소장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6 |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이나리 진해여성의전화 대표 /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7 | 통폐합 정국에서 씬터운동의 비전
김혜옥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새날' 원장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8 |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박현경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소장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5 분 스피치 1.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토론주제]

1) 성평등 현장활동을 기반으로 전문성 고민해 보기 : 복합차별(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고민과 역량은 무엇일까?

2) 복합차별(피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정부의 통합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성평등 / 복합차별 / 전문성>

장애여성공감

정부의 통합목표는 무엇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
사업폐지/예산삭감

일방적인
통합 상담소 추진

-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하고, 통합지원으로 틈새 메운다
-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메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4.25

1.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
2. 삭감된 권리 예산
3. 효율성 / 지원 메뉴얼
4. 유형별 지원
5. 원스톱 서비스 지원
6. 현장단체 의견 미수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실현 가능한가?

피해자 지원 현장의 통합은 정부의 통합과 다르다!

구조적 차별의 복합성을 질문하고 변화를 위해 지원

교차차별	장애라는 특성과 더불어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젠더 등 다른 특성과 결합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 -> 여러 차별 근거가 동시에 작동하고 서로 상호작용 하여 각 근거를 분리할 수 없게 됨
다중차별	한 개인이 둘 이상의 + 차별 근거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차별이 가중되거나 악화 되는 것

2022년 UN CRPD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 최종견해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간성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 젠더 다양성 장애인과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단체와의 의미있는 협의보장,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과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적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 종식 전략 수립**” 권고

장애여성 제 6조와 관련하여 장애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모든 성평등 법률, 특히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 관점을 주류화할 것과 법률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며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와 완전한 참여, 모든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달성하는 조치를 제안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의 구조

사례. 이주농민여성의 젠더폭력



한국 원주민 농민 남성인 남편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성/가정폭력과 경제적 빈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담보하기 어려워
폭력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움

한국국적 장애당사자가 아니라
한국 내 장애인/농민 복지시설 이용,
일상지원, 상담지원도 어려움

제도를 통해 체계화되는 구조적 차별

- 낙태죄 폐지 이후로도 유효한 **모자보건법 제14조**
-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에 있음을 이용하여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폐지** : 시민권의 박탈
- 장애인화산부인과 등 **선별적 의료적 접근**

제도를 통해 체계화되는 구조적 차별

- 보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지원 부재** : 독립적인 주거, 활동지원, 교육, 노동(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 **성과 재생산권리 부재**, 보호출산제 입법
- **동의 및 자기결정권의 위임/대리** :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명시 규정을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보장해야 함

제도를 통해 체계화되는 구조적 차별

가족의 돌봄/보호를 전제로 하는 사회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제)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자격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격 기준 심사

독립/자립을 지원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 최저임금적용 제외 보호작업장
- 시설 내 보호고용
- 개별을 지원하지 않는 복지체계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의 구조

-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장애’, ‘젠더’로만 설명될 수 없음
-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 (중략) 각자의 경험에서 서로의 삶과 운동을 배우고, 사회적 차별을 해석하는 힘을 익혔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2018.2.2

운동이 고민하는 통합성의 방향 장애여성 반성폭력 현장 중심으로

하나. 성평등을 위해

젠더기반 폭력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관점 등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이 함께
증진되어야

**둘. 복합적인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현장은 피해자를 통해
구조적 차별과 젠더폭력의
교차적 억압을 직면하는
최전선

**셋. 모두가
접근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자가
장벽/문턱없이 상담소에
접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지받으며 지원받는 환경

**넷. 인권의 포괄성
보장되는 체계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일관된 지원체계와
법제도로의 개정

우리의

**다섯. 성평등 현장을
만드는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

지양

전문가주의로
피해자/피해경험을
대상화 / 병리화/ 의료화

우리의

넷. 성평등 현장을 만드는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

지향

‘전문성’은 **관계 속에서**: 장애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소통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인권에 대한 관심이란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는 것,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바꾸는 것을 강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제된 이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

다양한 억압 권력에 대한 저항과 정치적 행위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

기존 구조 속에서 원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류은숙, 인권운동)

우리의

다섯. 성평등 현장을 만드는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

지향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재정의하며
제도화를 지양하는
‘전문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성평등 현장활동을 기반으로 전문성 고민하기
복합차별(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고민과 역량은 무엇일까?
1. 복합차별(피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5 분 스피치 2.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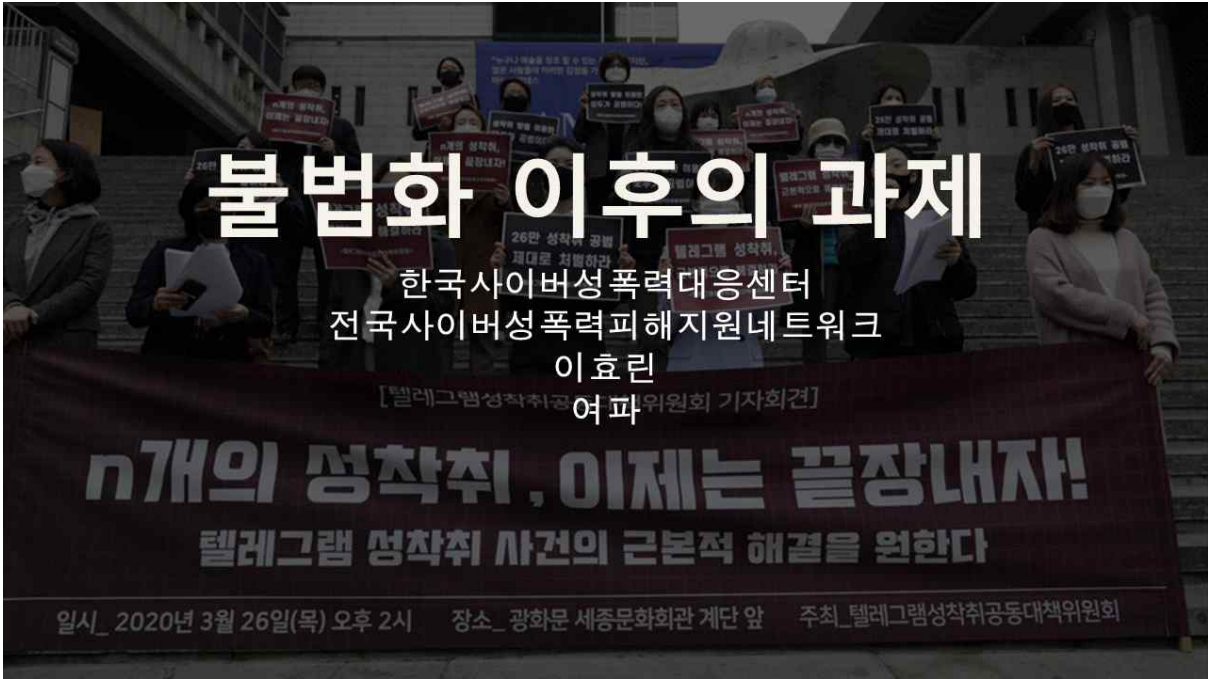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토론주제]

1) '젠더화' 된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앞으로 페미니스트들이 포착해나갔으면 하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은 무엇일까?

2) 성평등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까?



199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



2020년
 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화 이후 사이버성폭력의 현재



2023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고서 중



불안



경험 위축



성적 실천이
피해로 도착

'젠더' 렌즈가 빠진 사이버성폭력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젠더' 렌즈가 빠진 사이버성폭력

성적 요소가 없는
젠더 폭력

성적 요소가 있는
디지털 범죄



정치 : 정치일반

나경원·허은아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동일 잣대로 엄벌해야"

중앙일보 | 입력 2024.05.20 17:08

이해준 기자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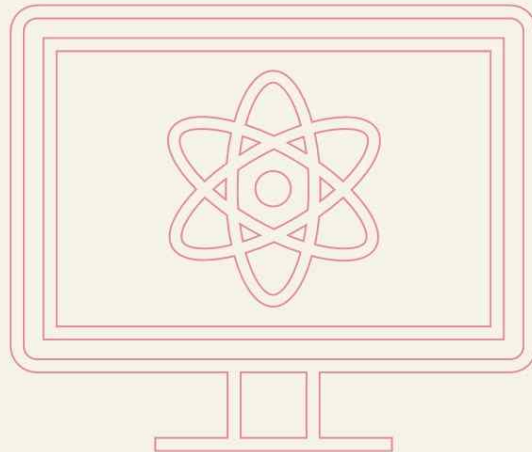
사이버성폭력 '젠더' 렌즈 씌우기

성적 요소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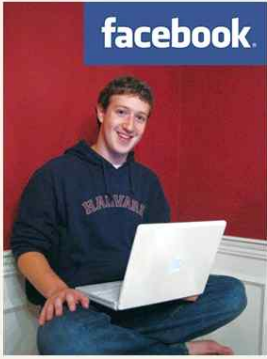


젠더 위계에 기반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평등한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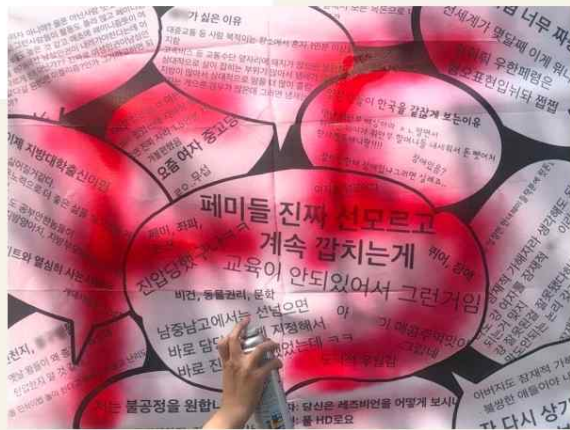


2004년 2월, 저커버그는 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외모를 평가하는 '페이스매쉬 닷컴'이란 사이트를 만들었다. 사이트 주소를 몇몇 친구에게 메일로 보내고 저커버그는 강의실로 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기숙사로 돌아온 저커버그는 자신의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되어 버린 걸 확인했다.

저커버그는 이것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로 넘기지 않았다. 그는 궁금했다. '관심을 폭발시킨 이유는 무얼까?' 자신이 올린 사진 속 여학생이 예뻐서? NO! 저커버그는 사진의 여학생들이 같은 학교인 하버드생임에 주목했다. 당시 세상은 이미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로 넘쳐나고 있었다. 다만, 모두가 '어떤 관계'에 의한 연결망 형성에 저커버그는 주목했다. 이것은 훗날 페이스북이 실명과 나이, 얼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실체의 창으로 자리 잡게 했다.

<“에브리타임 속 혐오성 게시물 550개, 47%는 여성혐오”>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 공개
20여개 대학 '에타' 내 혐오표현 수집
“혐오 게시물 방치...묵묵부답” 주장
방심위·에타, 게시물 혐오표현
심의 기준 마련 촉구



'이루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김학준 사회학연구자
2021.01.25



사설.칼럼 칼럼

[2030 잠금해제] 포털 장악의 욕망 / 이준행

수정 2015-10-04 18:49 ▾

“국내 대형포털의 직원 대상 교육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정말 검색결과 순위를 조작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니, 그럴 때엔 '조작하지 않는다'고 꼭 답하라는 당부이다. 알고리즘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 검색결과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 각 포털의 통상적인 해명이다. 물론 개발자들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검색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시 만들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총 상위 30위 기업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달러)	주가(달러)
1	삼성전자	3271억	49.47
2	LG에너지솔루션	907억	387.56
3	SK하이닉스	477억	69.35
4	삼성바이오로직스	465억	653.07
5	LG화학	380억	514.86
6	삼성SDI	336억	237.22
7	현대	312억	32.33
8	쿠방	299억	16.91
9	네이버	243억	161.65
10	카카오	227억	51.89

구글 CEO "연말까지 1000억 달러 매출 달성할 것"

이수현 | 입력 2024.05.13 10:11 0 개가





페미니스트 담론 만들기

성 엄숙주의

표현의 자유





사진 출처

이우림 기자, 「23년 전 사건부터 공포 '떨었다'...대한민국 뒤늦은 몰카 촬영」, 중앙일보, 2020.06.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95105#home>
 권지담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유료회원들도 조주빈과 일체된 공동정범"」, 한겨레, 2020.03.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356.html
 정지윤 기자,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가 4년간 '음란물 유통'으로 변 돈, 350억」, 경향신문, 2022.12.2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21017001>
 이진원 기자, 「글로벌·국내 시총 100대 기업」, Forbes, 2023.01.23, <https://magazine.joins.com/forbes/view/337342>
 유설희 기자, 「세계여성의날 여성계·노동계·대학생 도심 곳곳 집회·행진...미투 운동 '정점'」, 경향신문, 2018.02.08,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3081652001#c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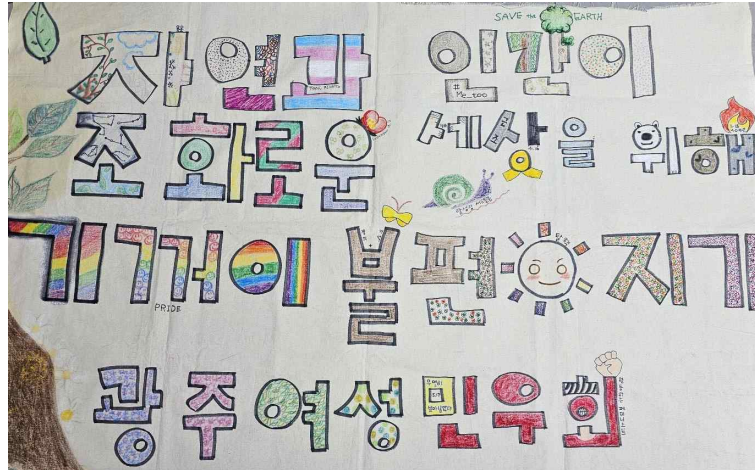
참고 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4, p.18
 이해준 기자, 「나경원·허은아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동일 잣대로 엄벌해야"」, 중앙일보, 2024.05.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530#home>
 박기중 칼럼니스트, 「마크 저커버그의 성공기... "도전과 끈기의 원천은 열정이다"」, 2015.11.11, <https://www.mk.co.kr/news/culture/7057194>
 진혜민 기자, 「"에브리타임 속 혐오성 게시물 550개, 47%는 여성혐오"」, 여성신문, 2020.07.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79676?sid=102>
 김학춘 사회학연구자, 「'이루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주간경향, 2021.01.25,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01181054111&code=124#c2b
 이준행, 「[2030 잠금해제] 포털 장악의 욕망」, 한겨레, 2015.10.04,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1304.html>
 이수현 기자, 「구글 CEO "연말까지 100억 달러 매출 달성할 것"」, 한국클라우드신문, 2024.05.13, <https://www.kclou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8>

5 분 스피치 3.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도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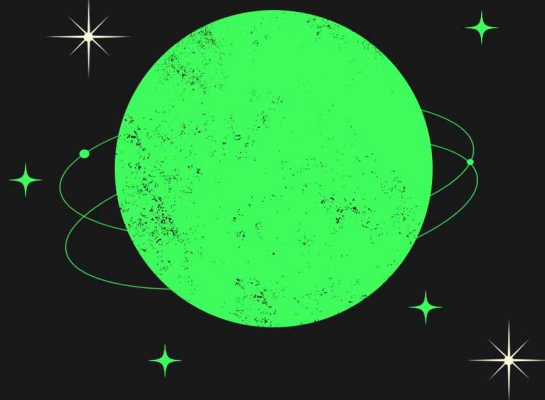


[토론주제]

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운동과 기후위기 문제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2)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경험 공유하기(비건,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등)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도담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해외 지속가능발전연수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7.25.(화) - 8.7.(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광주시행, 광주6차의제(2022~2026) 실현을 위해 협의회 참여단체, 기업, 행정, 마을관계자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해외 도시를 탐방하고 체득한 경험을 상호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 형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
계
수
요

일 정 : 10월 ~ 11월 중 (10일 이내)
방문지 : 2025 탄소중립 선언 도시 "덴마크 코펜하겐"
'CITY OF TOMORROW' "스웨덴 말뚝"
참가자 : 협의회위원, 참여단체, 기업, 기관, 행정, 의회, 마을
연수방식 : 참여자들이 직접 연수 설계
연수결과 : 연수보고서 직접 작성 및 해외연수보고회 기획

광주여성민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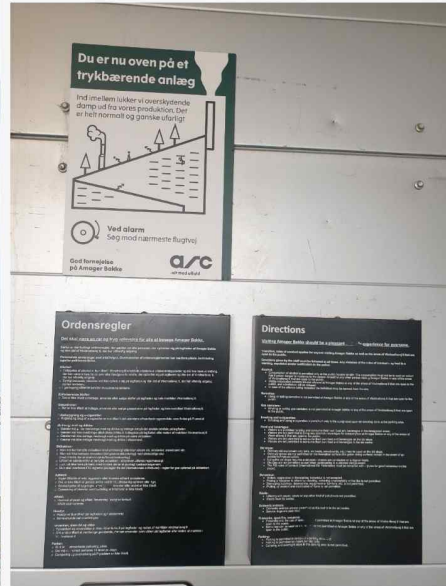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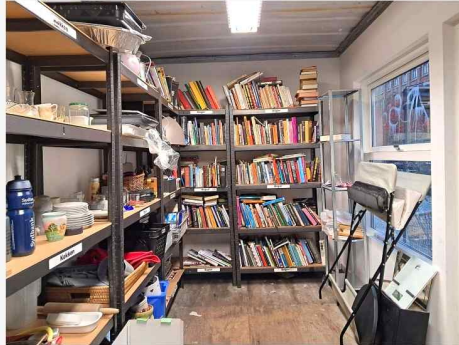


**공병 보증금
환급제도**



**덴마크 코펜하겐
Amager Bakke
열병합발전소**





덴마크 코펜하겐
재활용 스테이션

의류 수거함
업사이클링
물물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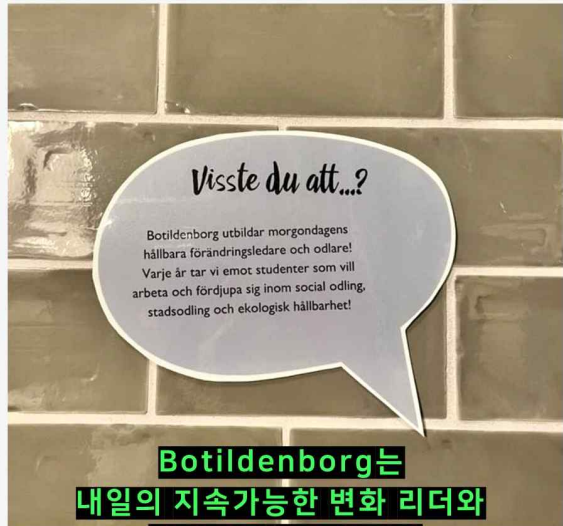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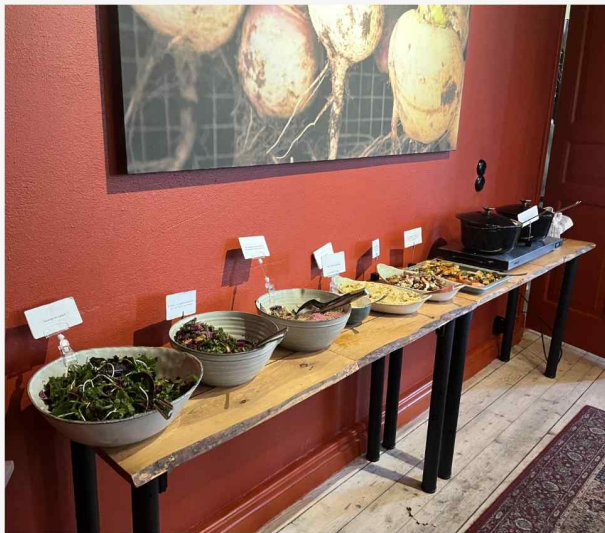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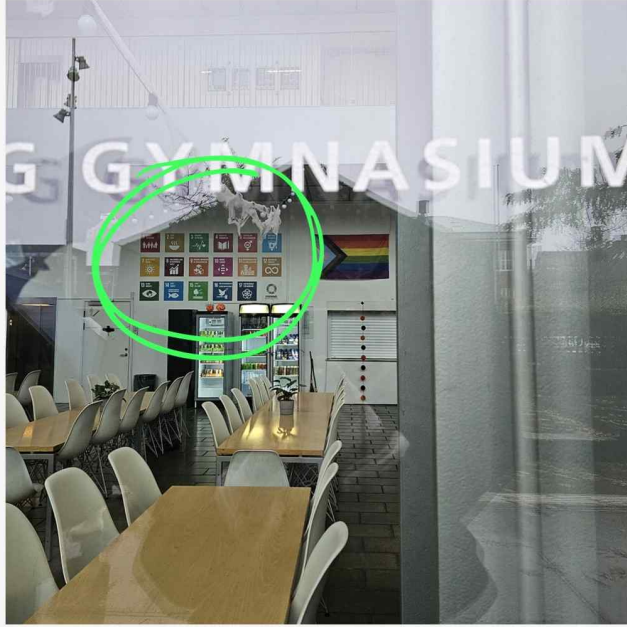
Botildenborg 스웨덴 말뚝 도시농업재단



Visste du att...?

Botildenborg utbildar morgondagens hållbara förändringsledare och odlare! Varje år tar vi emot studenter som vill arbeta och fördjupa sig inom social odling, stadsodling och ekologisk hållbarhet!

**Botildenborg는
내일의 지속가능한 변화 리더와
재배자를 교육합니다
도시농업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Lena Friblick
(재단 설립자)

저널리스트
고향에 돌아오다

다국적 이주민 고민



언어

일자리

연결고리

컨텐츠 - 음식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들



2015년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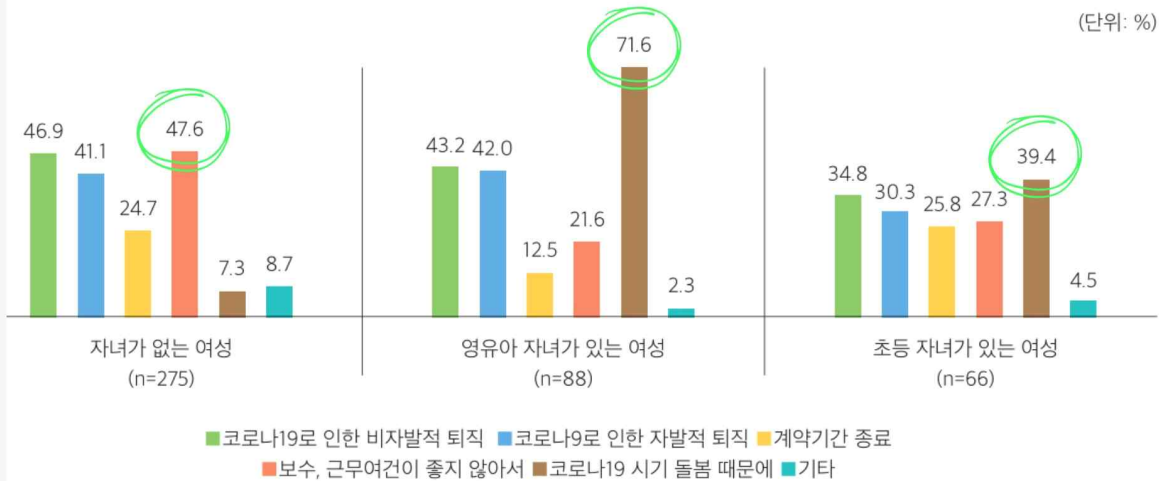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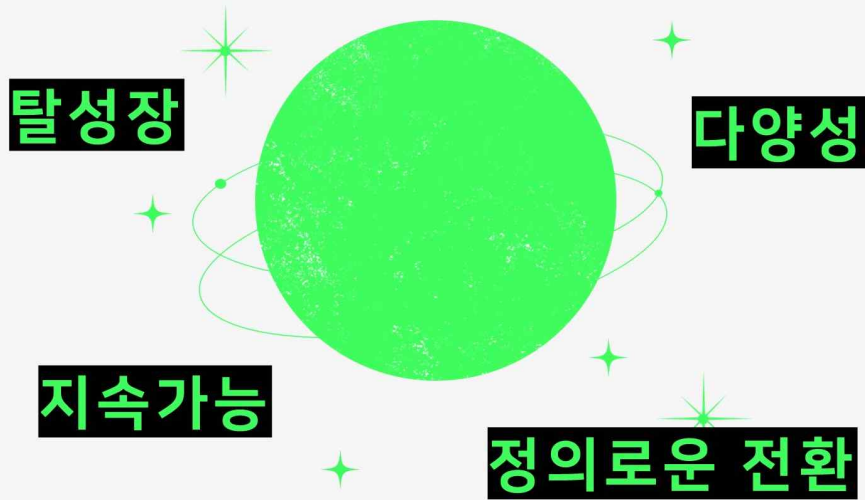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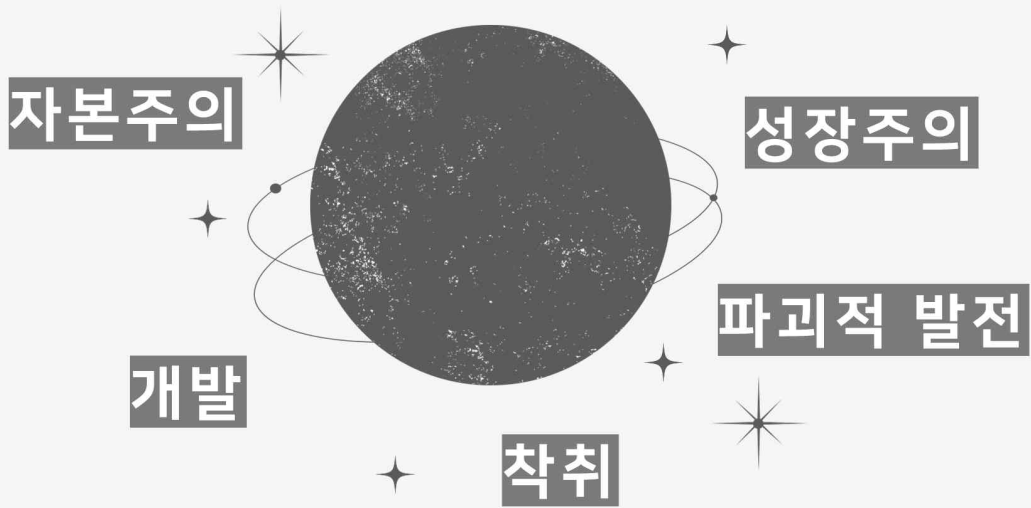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SDGs 6차 의제



[그림 2] 코로나19 시기 퇴직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1+2+3순위)



출처: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5 분 스피치 4. 이주여성, 차별과 경계를 넘어

이주여성, 차별과 경계를 넘어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 /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토론주제]

1) 이주여성의 직업 안정과 완전한 노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 미등록이주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주여성, 차별의 경계를 넘어



나무-충북이주여성상담소





결혼이민자
 미등록여성
 유학생
 동포
 이주여성노동자
 난민여성

.....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1
----------	-----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이원승·박덕홍·
박규택
김종양·서지영·서일준
주호영·박수민·고동진
박준태·최형두·강선영
의원(1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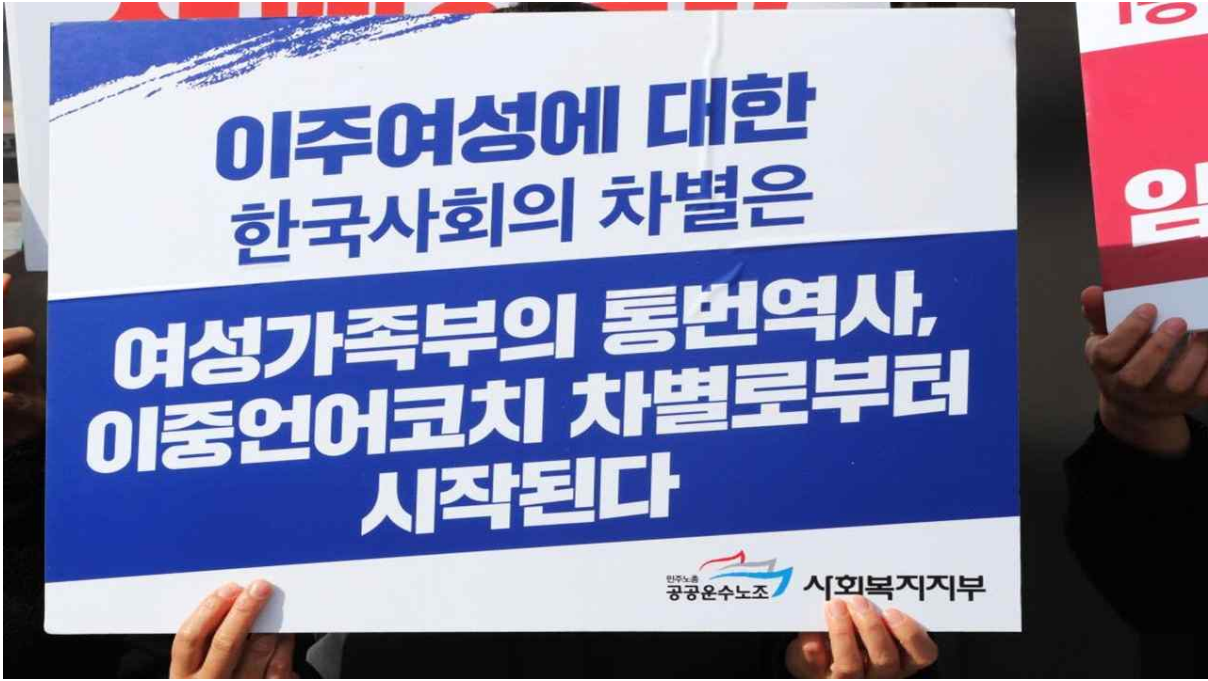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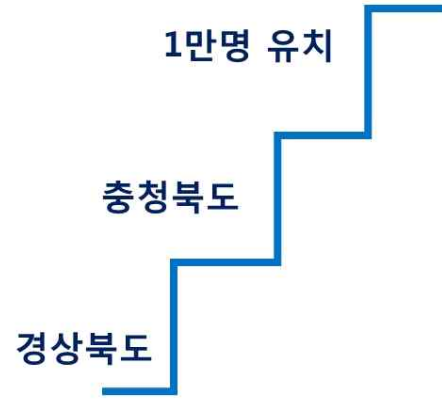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농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혼인기간을 채운 후 가출하여 혼인이 파탄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와 같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 유지 후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제 결혼한 농혼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한 간이귀화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국적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국제결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저출생 . 고령화 대책으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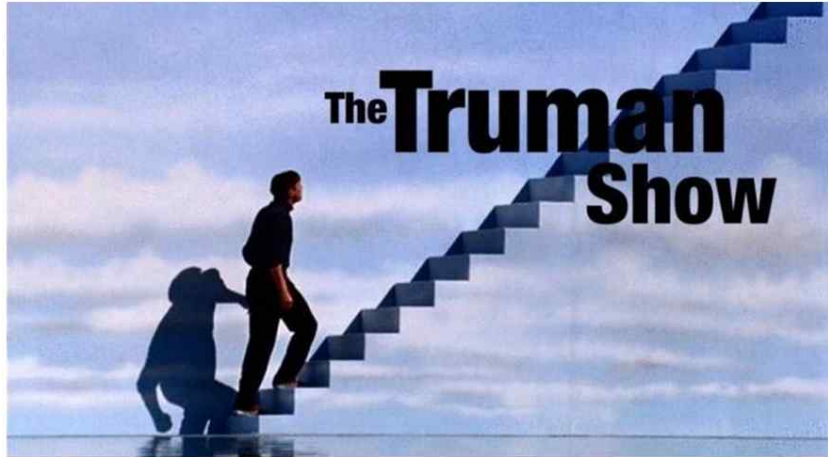
“아니야, 물고기 잡으면 돼”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딸
안전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저출생 . 고령화
대책이라는 핑계로.....(1)





2024. 7. 19

난민

아동착취

차별

아동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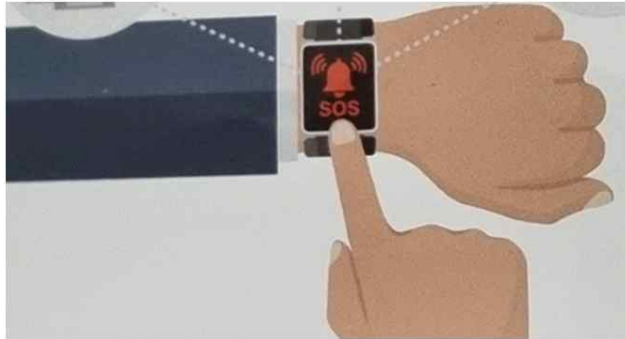
조혼







직장 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신뢰관계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5분 스피치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김양순 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토론주제]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이며, 아내 혹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할 인권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정폭력은 약자를 억압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사회적 악습이자 범죄이며,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스웨덴 숙소 화장실





소진예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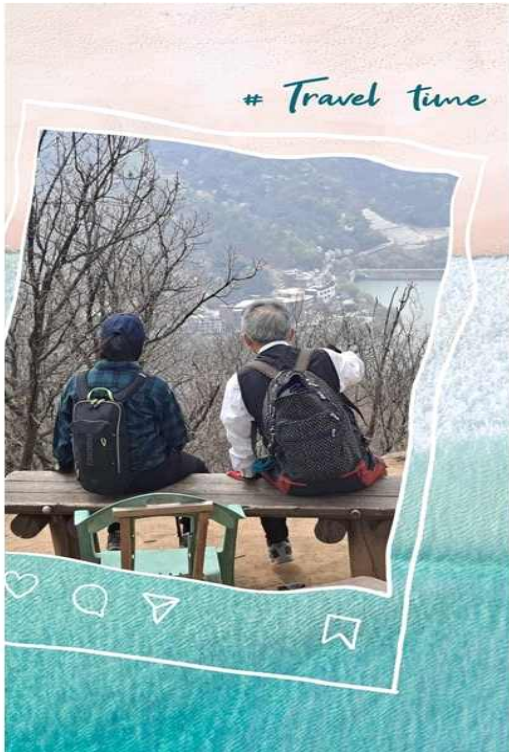


은퇴후의 삶~1

Love Myself~~!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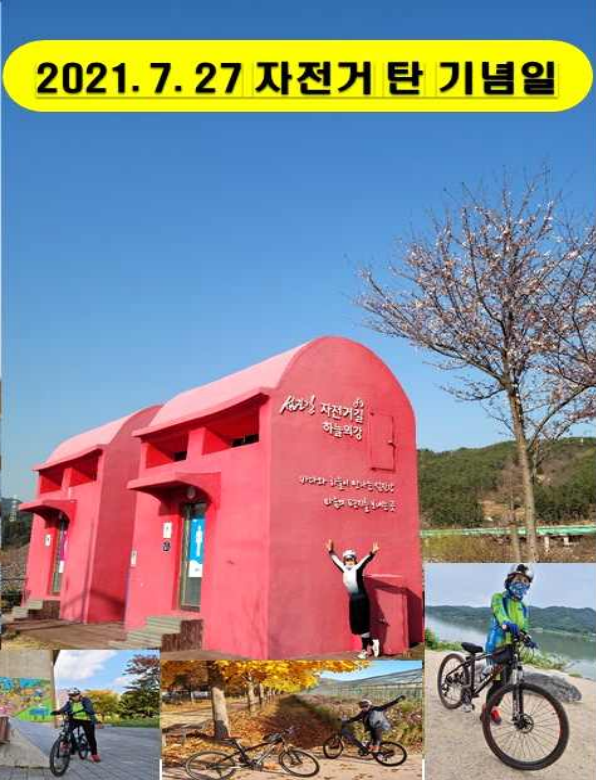
나의 아지트는~!







2022. 3. 29 매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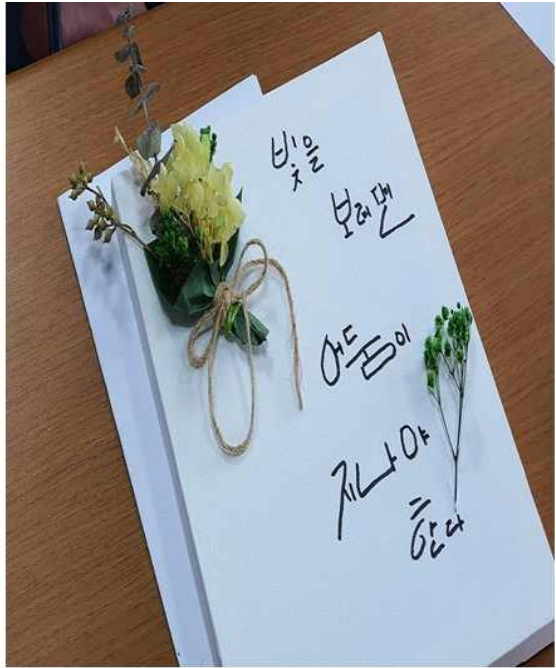
2021. 7. 27 자전거 탄 기념일



스피노자

“비록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전설의 가시나무새



고통 → 행복, 희망



Right Now~!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사)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장
김양순



Profile



김양순

학력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졸업
(가족상담전공)

현)

- (사)미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소장
-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5 분 스피치 6.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이나리 진해여성의전화 대표 /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토론주제]

1) 지역여성조직화 -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한 ()%,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2) 인구소멸속 지역여성을 조직화하려면 주 대상을 누구로 정해야 할까?

=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 =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사)진해여성의전화 마리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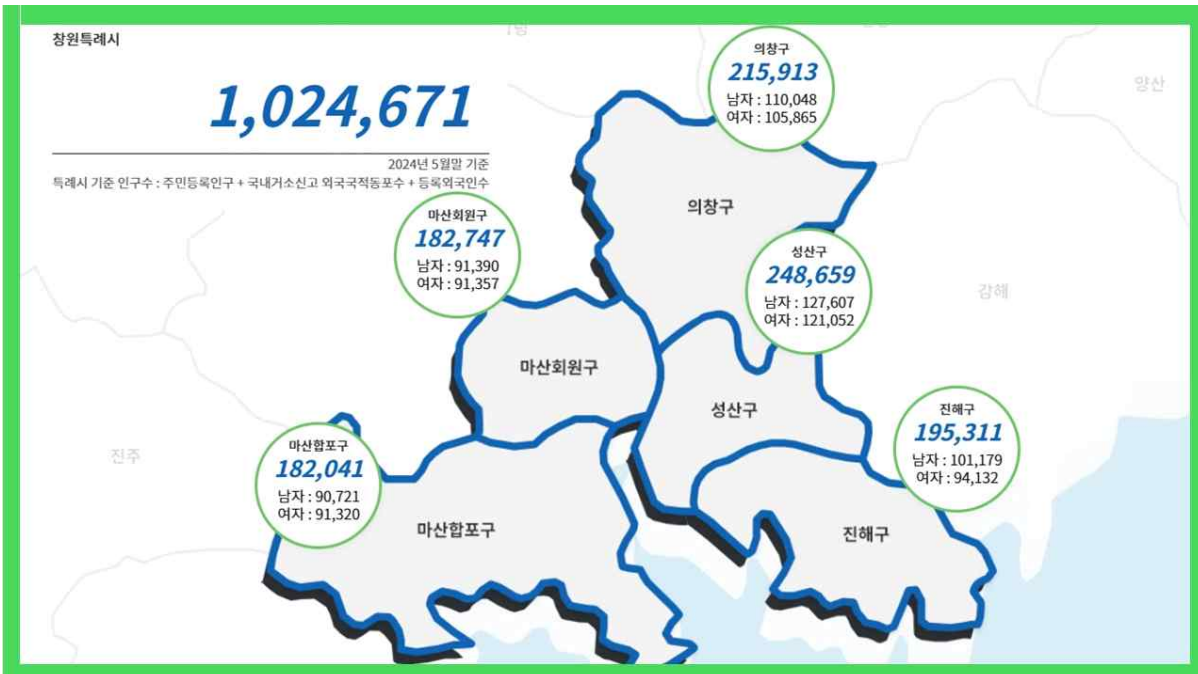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판단, 통제하는 정신작용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진해구 특성

해군
(이동이 잦음)

퇴역 군인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진해구 특성

신항만
(부산 인근)

대학교 없음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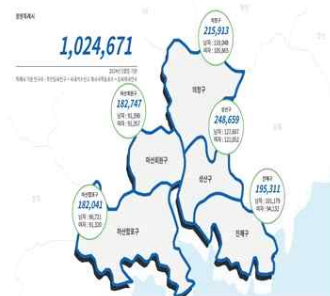
2022년 12월 말 기준(통계청)

- ❖ 대한민국 인구 51,439,038명
- ❖ 경상남도 인구 3,280,493명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도)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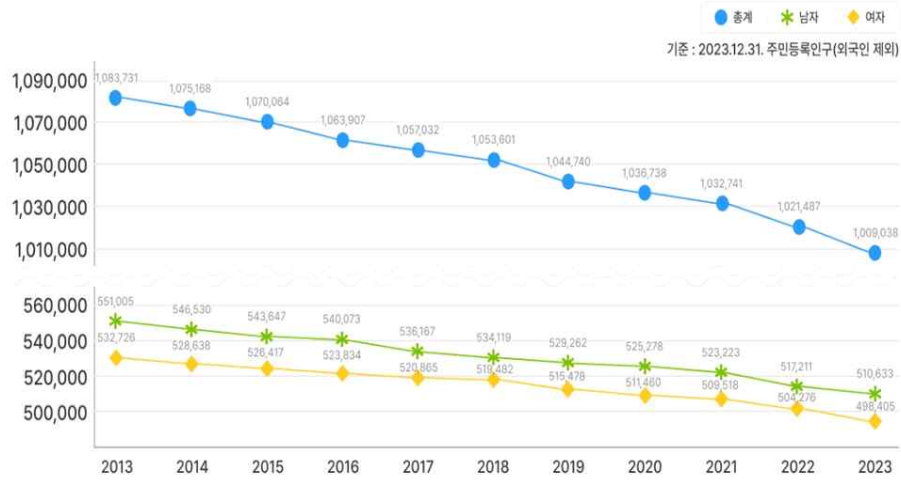
2022년 12월 말 기준(통계청)

- ❖ 창원특례시 인구 1,021,487명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인구총수 그래프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2010년

창원시



2022년

창원특례시



?

창원시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대한민국 예상 인구수(전국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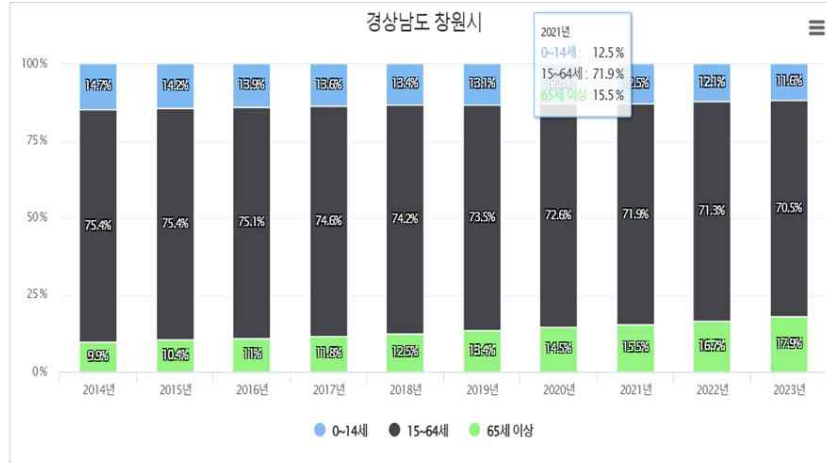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추이
자료 참조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연령별 인구현황 (연령계층별)

※ 범례를 클릭하면 필요한 항목만 표시 가능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지역내 여성활동을 함께 할 사람의 감소

노인인구
확보

교육프로그램 및
소모임
확대

지역민을 찾아
가는 활동 및
지역연대
활성화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지역내 여성활동을 함께 할 사람의 감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여러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지역내
청년일자리 감소

•중장년층
맞벌이 증가

지역내 여성활동을 함께 할 사람의 감소



지역여성조직화의 주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조직의 재정적 불안정 가속화

회원의 노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의 증가

새로운 회원 확보
의 어려움

회원 감소로 인한
재정의 악화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조직의 재정적 불안정 가속화

기업후원 모색

캠페인, 굿즈판매
등의 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집

홈페이지,블로그,
인스타그램,카카오
채널 등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과중한 업무량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 =

지역여성조직화에 메타인지를 적용해보면?

인구소멸담론속의 지역여성조직화/진해여성의전화

5 분 스피치 7. 통폐합 정국에서 쉼터운동의 비전

통폐합 정국에서 쉼터운동의 비전

김혜옥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새날' 원장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토론주제]

1) 쉼터가 안전한 환경과 인권보장 환경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2) 쉼터의 위기 요인은 무엇일까?

통폐합 위기에서의 쉼터 방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2항

가정폭력 방지법
'기본 이념'의 의미



방향성

권리의 주체

보호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폭력 방지법 기본 이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2항

통합 위기에서의 쉼터 방향

통합이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통합 ?



가정폭력 분야에서의 통합 ?



여성가족부 예산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예산 통폐합 방식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에서의 '통폐합' 방식



기능의 통폐합



기관의 통폐합



통폐합의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누구를 위한
통폐합인가?

who

The Δ Method For Hiring
제프 스타브스 · 앤디 스타브스 지음 | 권미영 옮김

누구를
어떻게
뽑으
것인가?



코로나 이후, 쉼터에 요구되는 키워드

기후위기

자립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환경

지속 가능성

권리주체

인권보장 환경

젠더 폭력의 다양화

피해자 지원체계의 다양화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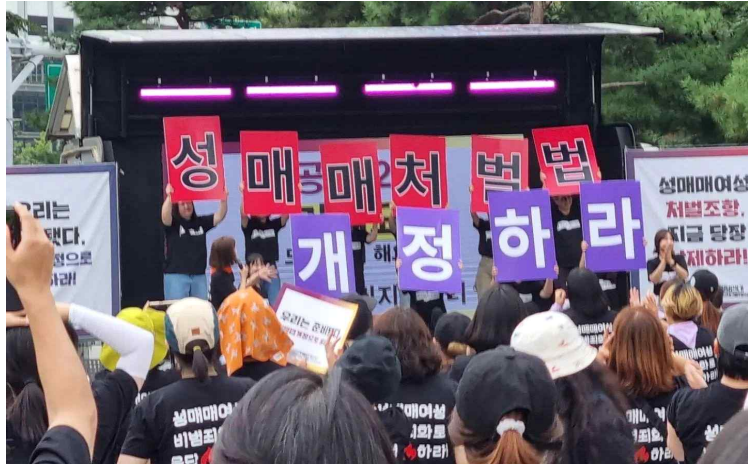
Q 1. 쉼터의 안전한 환경, 인권보장 환경이란?

Q 2. 쉼터 위기 요인 ?

5 분 스피치 8.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박현경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소장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토론주제]

1) 성매매는 나(우리)의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2) 성산업의 확산, 성구매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성산업

평소에
성매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매매?

성매매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2024 여성특권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박현경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박현경



성매매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성매매근절 일러스트 공모전 출품작 (2016/2021)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성매매근절
일러스트 공모전
출품작
(2016/2021)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성매매
✕
성매매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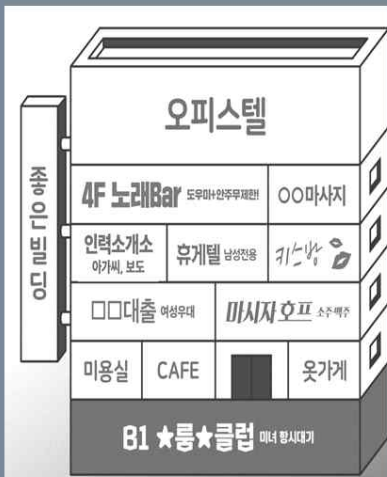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성매매에 대한 다른 시선

출처: 2018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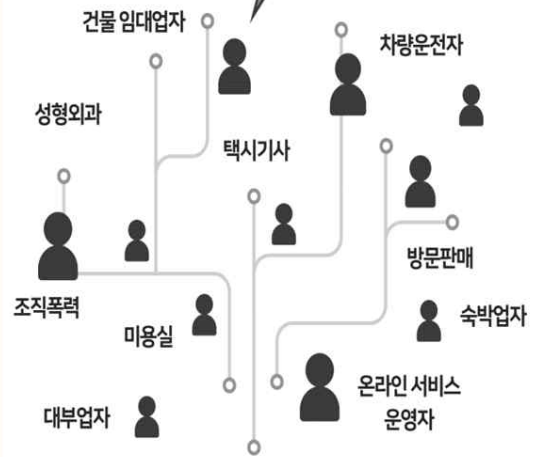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성산업 현황



출처: 2018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성산업의 카르텔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대한민국의 성산업 규모

하보스코프닷컴

(미국의 암시장 조사 전문업체)

성산업 규모 120억 달러 (12조 9천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2015년)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연구’

우리나라 30조 ~ 37조 규모

출처: 2018 성매매예방교육 준강의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명등교육진흥원)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거대한 성산업의 피라미드

출처: 2018 성매매예방교육 준강의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명등교육진흥원)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성적 쾌락을 핑계로
여성을 이용할 권리가
성 구매자들에게 있다는 믿음,
그것이 곧 성매매다.

그리고,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모든 것은 성매매가 된다.

신박진영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우리는 모두
성매매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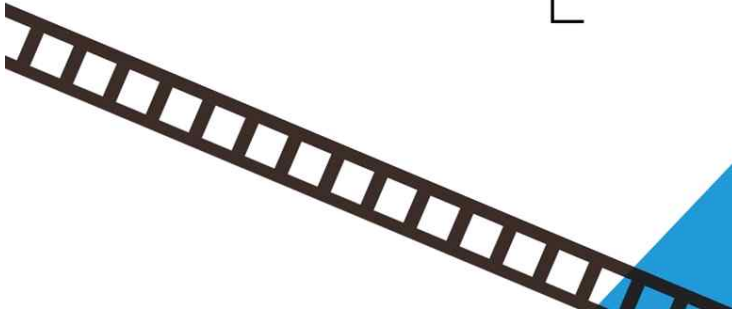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왜 반성매매
운동일까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떠오르는 얼굴들 떠올린 순간들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나의 언니

나를 상담원으로
활동가로 만들어준 나의 언니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내가 언니의 언니가 되다

나를 상담원으로
활동가로 만들어준 나의 언니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함께 걸었던
그 가을 밤



그 밤의 바람
그 밤의 향기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여성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다
남성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하면, 조국을 위해 싸우
다 전사했다며, 명예로운 이름으로 국민묘지에 안장되고
순국선열 반열에 오른다.

그러나, 후방의 희생자인 여성들에게는 불명예와 수모만
있다. 몽골군에 끌려갔다는 환향녀는 화냥년으로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정신대는 가문의 수척으로
한국전쟁의 피해자는 양공주로 낙인찍히고 멸시당했다
그 원인은 가부장제 때문이었다

STRAWBERRY YOGURT ICE CREAM

-이희호 가사편 [동행] -

우리는 모두
성매매 안에 있다

성매매

그렇게 성매매는
나의 문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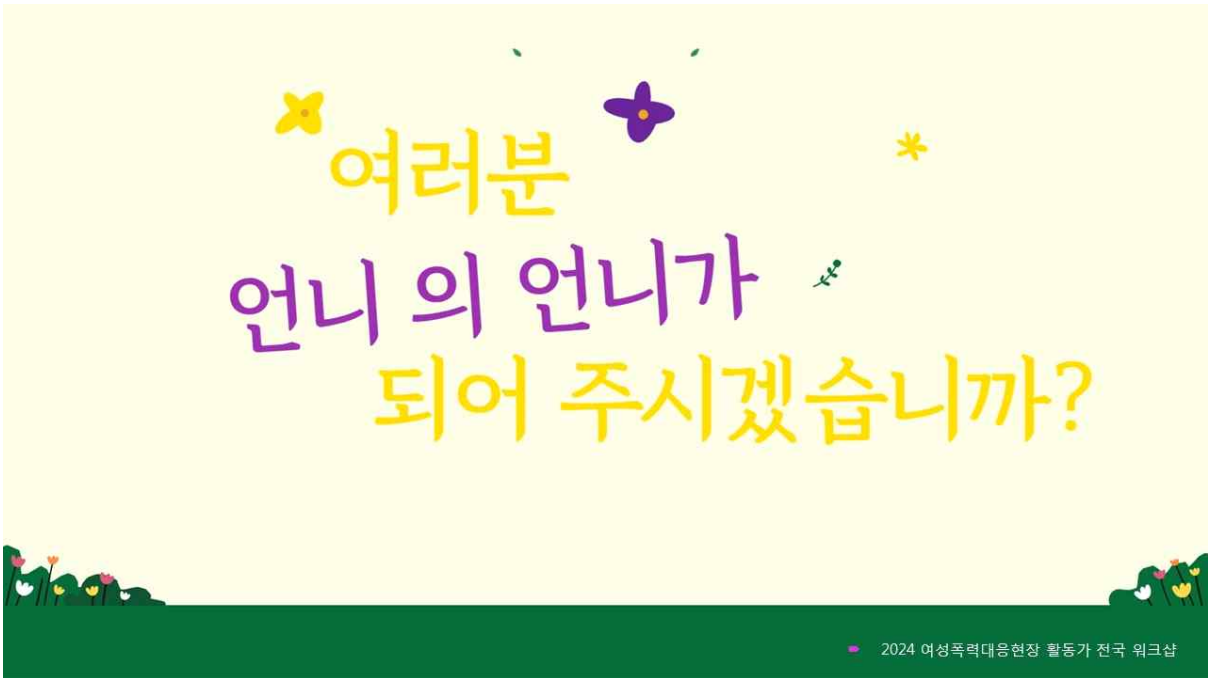
2024 여성폭력대응원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독수리 오자매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여러분
언니의 언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2024 여성폭력대응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샵

연대와 교류의 시간

김수민 여성인권센터 보다 사무국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윤정숙 지음가정상담소 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모듬토론 진행 안내

진행 방법

- 우리 모듬 찾기 (~09:10)
 - 참가자들은 퇴실 후 짐을 들고 T1 경기장으로 이동하여
 - 자료집을 참고하여 자기 모듬을 찾고
 - 모듬 위치를 찾아갑니다 (*모두 도착해야 시작하니, 시간엄수!)

- 우리 모듬 인사나누기 (09:10-09:25)

- 모듬별 역할 정하기 (09:25-09:35)
 - 모듬별 진행자 1 명, 기록자 1 명, 발표자 1 명을 정해주세요

- 우리 모듬 토론하기 (09:35-11:00)
 - 진행자는 모듬별 토론 주제 2 개를 모듬원들과 확인 합니다
 - 진행자는 토론 주제 2 개가 원활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시간배분등을 고려해주세요
 - 진행자는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 우리 모듬 토론 기록
 - 기록자는 토론 내용을 종이에 메모하거나, 별도 문서에 기록하여 ksvrc@sisters.or.kr로 보내주세요.
 - 꼭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내용은 워크숍 종료 이후, 더 구체적인 하나의 입장문 또는 선언문 형태로 정리되어 공유됩니다.
 - 모듬 사진도 1 매 이상씩 함께 보내주세요.

- 우리 모듬 선언 (11:00-11:15)
 - 토론을 마치고 “우리 모듬 선언”을 조별로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정리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따릅니다.
 - 1) 우리는 _____ 라고 생각한다/에 주목한다
 - 2) 우리는 함께 _____ 를 하겠다

- 모두 함께 선언 (11:30-11:50)
 - 발표자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T1 경기장 무대위로 11:20 까지 올라와주세요
 - 모든 모듬 발표자는 함께 위 선언을 발표합니다.

모듬 안내

주제	모듬구성
주제 1.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1 조 ~ 6 조 (11 명, 6 개조)
주제 2.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7 조 ~ 12 조 (12 명 4 개조, 11 명 2 개조)
5 분 스피치 1.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13 조 ~ 15 조 (10 명 3 개조)
5 분 스피치 2.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의 과제	16 조 ~18 조 (9 명 2 개조, 10 명 1 개조)
5 분 스피치 3. 페미니스트가 지구가 구한다	19 조 ~ 20 조 (10 명 2 개조)
5 분 스피치 4. 이주여성, 차별의 경계를 넘어	21 조 ~ 22 조 (10 명 1 개조, 11 명 1 개조)
5 분 스피치 5.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3 조 ~ 29 조 (11 명 5 개조, 12 명 2 개조)
5 분 스피치 6.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30 조 ~ 32 조 (9 명 3 개조)
5 분 스피치 7. 통폐합 정국에서 심터운동의 비전	33 조 ~ 34 조(12 명 2 개조)
5 분 스피치 8.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35 조 ~ 37 조(9 명 3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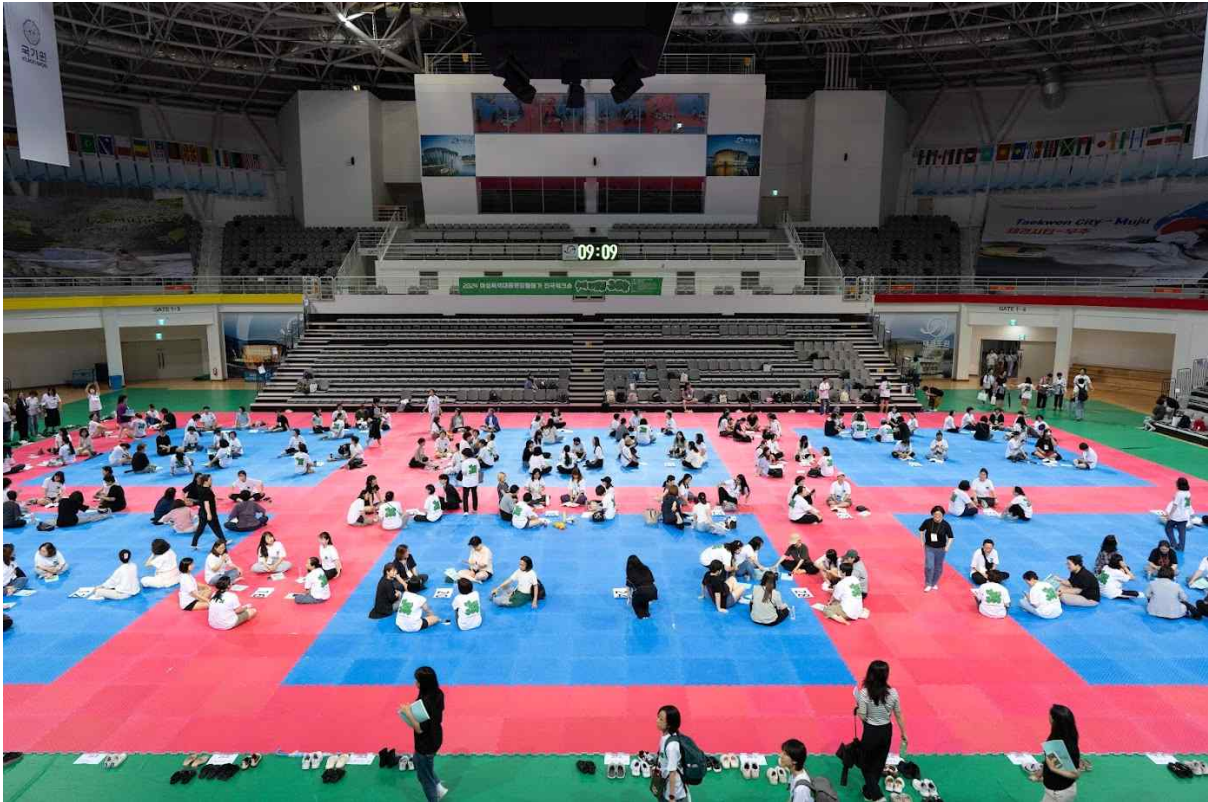
조별 명단보기

- [모듬별 명단](#)



모듬별 명단

모듬토론 결과



1 조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진행/기록/발표 : 정희/제이/얌

1) 무엇이 변화했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 성폭력에 분노하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 인식은 나아졌으나 법이나 사회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윤정권 이후에 악화되었다.
- 가폭상담 많이 늘어나나 가해자나 가해자 주변인 인식은 많이 안 바뀌었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도 여전
- 여성들 인식 변화한 것에 비해 남성들은 여전하거나 백래시 심해짐
- 가정보호 사건· 가해자 보호하는 쪽으로 간 면 아쉬움, 피해자도 온정적으로 넘어가곤 함
-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지원하는 시스템. 우리 단체는 모두 지원하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여성이 법적처분 받는 경우들 많음. 그래서 여성들이 사건화하지 못하는 부분 많음. 성매매특별법은 특히 인식 바뀌어서 법 만들어졌다기보단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져서 더욱.
- 미투운동 이후 문제의식 높아졌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 온도차가 크다고 느낀다. 목적조항 변경 반의사불발죄 폐지 등 변화 가능성 열리지만 피해 경험자들은 여전히 비슷한 현실 경험. 권리보다는 보호 위주의.
- 여성폭력방지법,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 발전은 했는데 그 과정들 보면 피해 발생해서 이슈화되고 사건 언론 심각히 다루면 정부에서 그제야 관심 가지고 법안발의. 겉으로는 발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걸 한번 더 느꼈다. 피해자들 직접 만나면서 정부가 정작 해야하는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 여성폭력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함. 피해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무력해지는 느낌이 든다. 피해자들은 많이 변했다. 당당히 주체적으로 움직임. 그럼에도 백래시는, 전부터 편견 있었던 사람들이 더 심해진 듯함.
- 변화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느낌. 성매매 풍선효과 언급하며 당사자들에게 계속 성매매 일을 떠안기는 측면.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업소에서 나와 교육 받고 치료 받으며 삶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에선 부정적인 인식 여전함.
- 변화를 했는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 같다. 90년대부터 비교하면 당연히 너무 변했고 최근 5년 생각하면 과연 변했나 싶은. 성폭력 영역에선 미투 이전 이후의 변화 큼. 법제도는 별로 안 변했어도 대중 인식은 크게 변화함. 오래된 웹툰 그루밍 장면에 대해 옛날 댓글과 최근 댓글의 차이 큼. 사람은 확실히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면 사회도 바뀌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변화진 않은 것 같다. 변화가 될락말락하는 시점에 백래시 정부가 들어와서 불안감 좌절감 커진 측면도. 혐오정치 어떻게 뚫고 나갈까 고민.
- 상황은 그렇지만 일반 대중 인식 변화를 우리가 느낀다는 건 고무적인 이야기. 투쟁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는 것 중요하다. 책 시장으로 간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적 도움 위해 투쟁해서 쟁취한 것, 그러나 어느 순간 법의 한계, 남성들이 법을 사용하기 편한 위치 가해자들 20만명 커뮤니티 존재. 성매매에서도 핵심적인 게 성산업. 이것도 가해자산업과 같다. 법을 결국 가해자들이 활용하는 상황. 제도라는 것이 갖는 한계가 분명한 거 같다. 인식 뒷받침 안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없애서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결국 법제도로는 한계. 해왔던 것처럼 인식변화 확산 활동 중요할 것 같다.

- 증거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피해상황에서 그래도 법 소송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사회가 변했는데 왜 이걸 내가 하면 불리하다는 거냐 라는. 인터넷만 보면 다 피해자말대로라는데. 근데 막상 현장은 그렇지않은. 밀양 사건 같은 건 당연히 가해자 욕하는데, 막상 내옆의 피해자 지지하지 않는.
- 변화는 됐는데 피해자 관점이 아닌 것.
- 성매매쪽은 그 간극이 아예 법으로 드러나 있음.
- 당사자들도 말 까딱 잘못하면 피의자가 되어버림.
- 피해자 관점에서 법 바꾼달지 인식 변화시킨달지 더 나아가선 권력을 바꿔야.
- 현장에서 느낀 게, 경기도에선 젠더폭력대응센터 마련하면서, 그 대신에 성폭력기금 없애버림. 도지사가 그럴싸하게 젠더폭력대응단 출범하면서 피해자 촛촛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누구나'를 강조. 남성 가해자들까지도 지원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우리가 쌓아온 것들 무너질 수도 있는.
- 여성이 삭제되고 있는 상황.
-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기금 살려두는 게 사실 더 낫다. 명분만 주는 대신에 실제적인 건 삭제해버리는 상황.
- 좋은 면도 있다 더 포괄적 지원범위랄지. 하지만 수요자 늘어나는데 예산은 안 늘리는 한계. 권리보장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실효성 없는 느낌.
- 정부 주도와 남성커뮤니티 요구가 만나는 지점들. 이 시점에서 피해자 관점에 집중해야.
- 한 번에 후퇴할 수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목소리내야 하는 상황. 근데 또 한편으론 제도가 인식을 못 따라가는 것도 맞다.
- 여전히 사법적 해결 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우 어떻게 이 폭력피해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여성운동이 도움을 주어야. 생존자 말하기, 내 피해의 해석.
- 피해자관점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어쩔 땐 고민되는 게 예산 한계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어떻게 제시할까, 국회나 정부에 어떤 구체적 데이터로 요구할까 고민됨. 현장에서선 징역 4년 진짜 많이 나온 건데 대중들은 사형 시키라 하는..
- 원론적 얘기일 수 있지만 가해자 처벌 약하고, 의원이나 법조인 인식개선 중요. 그들의 인식 차이가 큼. 폭력예방교육 등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
- 우리 사회 자체가 법조인 국회의원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득권층. 피해자들은 취약한 위치에 놓임.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거 같다. 억지로 해본 적 없고 아파본 적 없고 약해본 적 없는. 대중보다도 더 심한. 그들을 어떻게,,
- 법의 한계. 법률 만능주의. 다른 언어 다른 힘 필요.
- 승소했어도 너털너털해진 경우와 패소했어도 이 사람은 과연 졌나 싶은 경우 있다.
-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방어해가게 되는데, 우리가 담론을 주도하면 안될까. 여가부 그래 폐지해. 성평등청 설립해라. 전체 담론 끌려가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지 그림을 그렸으면. 옛날 위안부 모의재판처럼, 주목을 끄는 액션을.

- 이번 밀양사건, 사이버력카 가해자 공개. 이슈화 위해서 직접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 전하는 경우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많음. 피해자가 원하는 걸 다 하게 하는 게 피해자 관점은 아님. 그 소통을 잘 하는 게 어려운 거 같다.
- 대중이 여성폭력을 너무 소비하는 느낌. 웹툰에 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피해는 잘 모르기도,,,
- 주도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중요한 논의테이블에 우리가 늘 빠져 있는데. 겉도는 이야기 같이 느껴짐.
- 중요한 지적이다. 어떻게 전달하고 변화시킬까?
- 내담자에게 수사관이 왜 이제 신고하냐고 질문했다더라. 여전히 수사관 인식변화 필요.
- 큰 담론이 아니라, 일선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요청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야.

2) 활동가, 행복한가? 무엇이 나아가게 하나?

- 급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임금체계. (행복하다)
- 급여가 엄청 낮았던 때도 있고 이젠 최저임금선. 근속년수가 더 길어짐.
- 급여가 기본이라면 알파는? 자긍심. 내 활동의 영향력이 변화를 만든다는. 지역변화 사회변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 입사 4 개월차. 일이 너무 재밌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배움. 시야가 넓어짐.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 연대에도 관심 많은 기관인데 경험과 시야 넓어지는 느낌. 성장.
- 행복한가는 잘 모르겠고,, 매일 벌써 6 월이네 벌써 7 월이네 하면서 바쁘게 활동하는데 뭔가 뚜렷이 보이진 않는 채로... 저도 소속은 자활지원센터지만 실제 업무는 사무국. 대외활동 많이 함. 내담자 여성들 만나는 업무보다 시민단체나 시민들 만남. 더 활동 열심히하고 현실 알려야겠다는 생각 많이 한다.
- 새로움. 정의로운 내담자. 의지할 동료들.
-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 내가 변했구나 를 느낀다. 인식 업그레이드. 쉼터에 있다보니까 입소자분들이 힘을 얻는 모습 보며 힘을 느끼고 있다.
- 다른 단체 한 십년 활동하다가 일년 쉬고 여기 왔다. 쉼터 일하고 지금은 상담소. 저는 상담소가 더 맞더라. 쉼터는 일이 적기도 하고 좀 침체된 느낌도 있었는데 내담자 지원하면서 더 좋다. 내담자들이 경찰들보다 상담소가 더 도움된다 이런 말 들을 때. 활동가가 된 게 행복하다. 몇 년 더 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싶다.
- 행복한가? 마음공부 하고 있다* 행복하다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다 라고 생각하려 한다. 그리고 내 인생에 주체가 되는 것 거기에 이 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걸 빼면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 19년에 일 시작. 저 포함 두 분 일함. 들어오기 전엔 전혀 몰랐던 세상이었다.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가장 큰 변화. 피해자 지원 재미있었다. 6 번째 되어가는 지금은 조금 피해자들 보고 이런저런 것들 하다 보면 그 인생 전반의 것들을 보며 아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아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시점. 여기서 일하며 많이 변했기에 이걸 안하고 살 순 없었던 생각도 든다. 행복하다기보단 보람이 있다. 기본이 막 좋다가 또 다시 시작. 반복.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으로 살고 있다.

- 행복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다. 활동가이지만 개인으로선 다양한 정체성. 여기서 2년차인데 다른 여성단체에서 10년쯤 활동. 최소한의 활동비로. 임금노동 다른 데서 하면서. 근데 그걸 지속할 순 없는. 기본 최저임금이지만 이 정도에서 활동하는 것도 감사. 혼자가 아니란 것,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 느끼면서 활동하는 게 원동력인 거 같다. 늘 책에 머물러 있다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여성들 만나는 것에서 보람 느낀다.
- 작년부터 행복하단 생각 많이 한다. 안식년 행복하더라. 복직해서 상담팀으로 옮겨서 활동중. 상담소 동료들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 분노 함께하고 분노 설명 안해도 알고 뭐라도 하고 싶어할 때 하자고 하고. 이 공동체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느낌. 무력감 드는 게 너무 싫다
- 윤석열 보면서 땅파고들다가 여가부폐지 같이 막아내면서 무력감에서 나오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곳에서 뭐라도 하는 동료들과 있는 게 행복하다
- 수많은 좌절과 무력감 경험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과 말하기 프로그램.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영향력 축소되거나 하는 변화들 지켜보며 활동의 의미 확인. 처음부터 다 만들어가야 하는 게 힘들지만 하고 싶은 거 다 맘대로 해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동료들. 동료들이 참 좋지만 참 밉기도 하지만.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든든함.

선언

- 우리는 사회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법제도에 매몰되지 않고 피해자 관점으로 변화를 만들겠다

2 조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진행/기록/발표 : 오늘/감이/수현 (모듬 13 명)

1) 한국 사회는 변화했는가?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변화했다면 무엇이 변화했나, 변화가 막히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 막고 있나?

- 변화 하고 있다 느끼나?
 - 대체적으로 변화중이라 느낌
- 무엇이 변화했다 생각하나?
 - 사건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향 많아짐.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증거제시해야 인정되는 한계
 - 변화 가로막는 것: 성.사회통념 문화. 왜곡된 사고.
 - 피해자에 대한 낙인 덜해지고 피해자 스스로 숨기지 않게됨. 금전 보상 원하는 변화
 - ex) 부산돌려차기 사건. 민사 보상 원하는 피해자 많아짐. 하지만 보상금액 적음. 법원이 따라가지 못함
 - 변화x 이유 = 백래시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거없이 신고 주장)
 - 여성들 여전히 자기잘못(=피해)이라 여김. 완벽하게 변화 안됨.
 - 정부기조에 따라 달라짐. 성인지감수성 문제.
 - 2 차 가해에 대한 민감성 높아짐. 남초집단은 현저히 떨어짐. 동일하게 변화 안됨.
 - 민감성. 감수성 집단별 차이가 큼
 - 변화는 많이있다. 피해자 진술신빙성 인정 많아짐
 - 윤정부 기조 변화에 사법부 판결 영향.
 - 피해자들 사법제도 활용 많아짐. 성공경험 쌓아 변화가능 기대 but 못따라가는 법. 기관들. 사회
 - 어촌, 탄광(삼척)에서는 50 대~ 경찰연계후 2 소취하 많다. 가장폭력 말안했던 세대. 가해자 옹호하기도. 연령대 따라 차이크다. 성인지감수성 낮은 뒷사람들 교육필요.
 - 눈에 띄는 변화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는 내면의 통념들 많더라. "그래도 이상한 피해자 있잖아?" 이런 것들 더 드러내야겠다.
 - 아동 청소년들 인식이 높아지고 피해자 권리주장. 미디어상 변화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신고 x 도움 요청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성세대 통념 2 차피해 때문에 막히더라. 아동청소년들은 지지/존중해주면 권리 펼칠수 있는 가능성 높다.
 - 젊은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이끌어감
 - 경찰에 의한 2 차 피해. 법정책 관련자들 인식변화필요
 -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백래시 정치에 맞서는 활동을 하겠다.

2) 활동가로서 올해 행복한가? _무엇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가?

- 신입. 더 관심 기울이기 노력
-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 만날 때 행복
-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변화하는 부모들 보면 행복
- 다같이 편안하게 웃을 때 행복
- 전국 모임 자리가 행복(오늘)
- 피해자가 회복됐을 때 보람
- 기복이 크지만 행목으로 가는 중
- 10월 중 10년 활동 기념 파티 기획 중. 재미있어서 활동 지속. 새로운 일, 이슈가 역동적
- 오늘이 제일 행복
- 정산하느라/구청과 싸우느라 소진
- 변화가 더딘 언니들의 작은 변화볼 때 행복
- 작은 변화에 일회일비 하지 말자. 개인적 삶과 내담자 분리 필요. 온오프 잘해야겠다
- 내담자 성장한 모습에 뿌듯. 활동가가 된 내담자에 행복
- 활동가를 지지, 격려, 존중해주는 기관
- 누군가의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기간동안 동행하는 것. 내담자에 배우고 고마움 표현하면 보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일조하는 뿌듯함
- 힘들다. 시험 5회 낙방. 내담자가 회복하는 모습 행복
- 신입. 업종변경 잘했다 생각. 아직 소진 안됨.

선언

-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에 주목한다
- 우리는 백래시 정치에 맞서는 활동을 하겠다

3 조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진행/기록/발표 : 주희/쭈니/나랑토야 (모듬 12 명)

1) 한국 사회는 변화했는가?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변화했다면 무엇이 변화했나, 변화가 막히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 막고 있나?

- 법과 제도가 바뀌고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들로 인하여 변화가 막히고 있는 것 같다. 활동가들의 변화 뿐 아니라 지도층의 변화도 필요하다

2) 활동가로서 올해 행복한가? _무엇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가?

-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내담자와 동료이다.

선언 :

-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활동가” 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다

4 조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진행/기록/발표 : 미선/영란/하나

- 1) 한국 사회는 변화했는가?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변화했다면 무엇이 변화했나, 변화가 막히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 막고 있나?
- 2) 활동가로서 올해 행복한가? _무엇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가?

선언 :

-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활동가” 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다

5 조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진행/기록/발표 : 해밀/나래/누리 (모둠 10 명)

- 1) 한국 사회는 변화했는가?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변화했다면 무엇이 변화했나, 변화가 막히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 막고 있나?

- 2) 활동가로서 올해 행복한가? _무엇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가?

선언 :

- 우리는 느리지만 계속 변화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끈질긴 생명력으로 계속 요구하며 연대하겠다

6 조 세상을 바꾸는 젠더폭력대응운동

진행/기록/발표 : 부리부리/동은/지영 (모듬 10 명)

0) 인사나눔

-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닐까 우선 내가 내주변이 바뀌는게 벅차다. 내담자와 지원자와의 관계속에서, 프로그래 속에서 가슴이 뵈다

1) 한국사회는 변화했는가? 피해자 낙인에서 권리보장으로 : 변화했다면 무엇이 변화? 변화가 막히고 있다면 무엇이 가로 막고 있나?

- 변화 더디지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주로 만나는 내담자는 지적장애인. 피해 낙인 이전에 장애로 이중 낙인. 현장에서 활동하며 장애여성으로서 누군가의 보호, 도움이 필요하다는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이중낙인에 함께 맞서는 활동가의 일이 보람이 되고 변화를 체감. 한편 뭔가 배우는 것, 아는 것에 대해 느리다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음 그러나 우리는 5년,10년 이렇게 멀리보고 실제로 변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 등은 멀리보지 못하고 이에 현장은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제로 당했다는 '피해자다움'의 전형을 벗어났다고 상상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걸림돌
- 저 나름대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이 일을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내가 따듯한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 활동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인식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한다. 교육을 할수록 변화되는 나를 본다. 일례로 지역 정치인들 우리한테 페미니스트와 동성애 혐오 같이 엮어서 한다. 그런거 보면서 어이도 없지만 이런 것에 대응하는데 나부터도 공부를 많이해야겠다 이런생각. '피해자다움을 증명해야한다'는 걸림돌도 피해자 지원하며 많이 느낀다. 법원에서 가해자는 변호사 대동하고 땡땡거리고 피해자는 구석에 꿏꿏 숨기고. 최근 전주에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 가해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피해자는 폭력의 후유증으로 힘든데도 이걸 법도 못보고 있는 것.
- 다양한 피해자 만나는데 가해자는 왜 다 똑같이 주장할까
- 군성폭력상담소에 현장은 많이 변화. 군사법원에서 1,2심 대법원만 일반재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폭력사건과 군사망사건은 일반 재판부러 넘어왔다. 하지만 민간 법원도 쉽지 않다. 관할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송치조차도 잘 안되고 있다. 오히려 군에서 있을때보다 기소율이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
- 그러나 법도 바뀌고 당사자도 변화했다. 주 사건을 호소할때 폭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강간 강제추행 모두 있는 사건은 강제추행만 고소하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또다시 우려가 되는게 피해자정체성 중심이 되는경향.
- 한편으로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없는 성폭력 주장. 남자군인이 여군에게 강제추행당했다 주장. 피해자의 자리는 마련하는게 필요하지만 피해자 정체성만으로는 안됨. 여자와 군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여군을 선택한 사람은 소명으로서 한다. 그런데 성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못참고 정년을 나오게 된다. 군성폭력 2 차피해 특성때문. 여군이 적은데 갑자기

어느순간 전출된다. 그러면 피해자 특징이 되고 2 차 가해가 심각해진다. 이중사 사건도 간부 전출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중사는 급하니까 시기가 아닌데 전출. 보직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소문이 퍼지는 구조. 군대 내 남군이 90%이상이니 피해 사례 많지만 이런 구조 속에 여군 피해비율도 심각. 여군 숫자가 늘어야하고 지원인으로서는 정년을 채울수 있게 하는걸 목표. 법도 바뀌고 제도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 진해도 해군이 많다. 배를 타야하는 특성. 법이 바뀌면서 육지로 와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 피해자가 신고하려면 항로를 바꿔야하니까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 돌아감. 한국사회의 구조와 군대는 맞물린다. 민간인으로서 모범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군대가서 괴물이 되는게 아니라 만연한 차별과 혐오가 군대의 계급사회, 권위주의적 문화와 만나 문제가 발생
- 청소년 현장 이야기.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을 입는 경우. 가해자는 성인 비율 높다. 일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원자로서 그것은 함께 노력하지만 재피해경험 많아 지원인으로서 어려움
-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방만해서 그렇다는 비난의 화살 쉽게 노출.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인식 만연한것과 재피해경험 높다는 것 같이 놓고 봐야하겠다.
- 피해자 다문화가정비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주여성 많이 들어오면서 가족구조, 인구구조 변화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
- 다문화가정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내담자로 만나고 있다.
- 청소년 재피해비율이 높은 이유도 많이 고민해야하겠다 한편으로 ‘일반적 가정’은 다른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자로서 생각하게 된다
- ‘정상가족’ 속에서 피해자도 많이 만난다. 변화가 느리다. 문제는 사회와 가족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 우리는 피해자들이 언제나 연락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
- 비동의강간죄 운동하며 법의 문제 확인. 그런데 특히 대법원 등에서 동의에 대한 진전된 판결도 나오고 있음. 동의를 반복될 수 있다는 것, 돈이 지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 등 아동청소년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이지만 미투운동 이후 법원에 판결 달라지는 것 같다는 평가 상담소에서 해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목하고 있는건 온라인 공간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여성에 대해 모욕적인 방식으로 발화되는 수많은 말. 이들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자체를 공격하고, 동의를 피해자의 내심의 문제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 저에게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현실도 답답하지만 이 폭력적인 문화와 말 앞에서는 얼떨떨한 느낌이 든다.
- 이중성. 법과 제도에서는 엄벌주의 기조로 과잉처벌된다고 인식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일상적 변화는 정체되어 있는.
-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최근 몇년간 법적 개선. 어린이 청소년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 관계윤리가 전혀 결여된 채 차별과 혐오가 너무 심함. 피해자들이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후 사회적인 지지가 불분명. 그럼에도 지원자, 지지자 우리의 존재가 성과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지하는 사회는 멀었구나 생각. 작년 피해자 주민등록열람제한 법

변경되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난감한 부분이 있다. 법 변화는 계속 따라가며 여성주의적으로 대응해야

- 성매매방지법 20년. 캠페인 현장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우리 5천원만 주면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한편 성매매를 하는 남편을 알고 있지만 가족구조를 깰 수 없는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도 마주. 이런 것 어떻게 돌파할까?
- 개개인 인식 개선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그런데 내담자분들이 비밀보장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우려가 많을때 아직 성폭력 피해의 낙인이 있다는 생각

2) 활동가로서 올해 행복한가? 무엇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가?

- 불송치가 많이 나간하지만 지원하는 사건이 유죄판결이 나면, 가해자의 잘못이 맞다는 것 확인받는 내담자 보면서 행복
- 사회를 변화시킨다 여성주의적으로 그래서 행복
-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고 행복을 느껴왔는데 올해 좀 힘들었다. 왜냐면 입소 청소년의 사례지원 중 학교 담당 선생님이 청소년 학교 오지 않아도 출석 인정해주겠다고, 활동가는 돈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말. 너무 힘이 빠지더라 그러나 아이들이 원동력!
- 청소년 일상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다. 지원인과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행복
-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잘하고 있나 회의도 많이 든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고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타성도 생기게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힘을 받는 존재는 동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힘. 그리고 지원하면서. 법률지원이 마무리되고 연결이 어느순간 끊기고 타지역으로 이동한 언니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고, 언니가 다급한 상황에서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그걸 내가 알아들을 때 보람. 이 자리에서 버텨서 이 말의 맥락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이런 순간들이 행복한 순간. 이런 마음으로 지속하렵니다.
- 유죄판결 받는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내담자의 말인 것 같다. “아침에 해를 보면서 출근하는 게 참 좋네요” “아 선생님 저는 돈을 받고 성폭력을 당했던 거네요” 이런 말을 들었다. 언니들과 함께 운동의주체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일하면서 힘든데 어디가서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럴때 동료들의 존재가 소중
- 저는 법원에서 직접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불기소, 기소유예 이런 소진되는 상황도 있지만 피해자들과 피해회복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 인식할때 기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때.
- 12년차 활동가. 전성협은 10년간 일한 활동가들에게 <아름다운세월상>을 주어서 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업무에 치여서 기쁘게 받지를 못했다. 현장에서서는 내담자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한편으로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나도 자신 없는데 이런 자괴감 들 때, 개인적으로는 갱년기를 거치며 힘이 드는 시기였다.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 이야기 들으며 환기되고 위로가 되었다. 행복해져야겠다.
- 내 옆에 있는 사람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웃음)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은 나의 변화 때문. 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 별 이유없이 이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참

잘했다. 이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좋은 거를 다른 사람도 다 했으면 좋겠다!

- 말이 통하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게 좋다!

선언

-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지금 우리의 존재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피해자와 연대 하겠다

7조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진행/기록/발표 : 문숙/경인/문숙 (모둠 10 명)

1) 어제 발표를 듣고

- 우리가 여성인권운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됨. 지침,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 우리는 비영리조직인데 자꾸 정부조직에 귀속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됨. 현 정부의 추진에 분노하게 됨
- 피해자 입장에서 통합을 원할까 하는 생각을 함. 가폭이 통합이 되었을 때 기존 성폭이 하는 만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통합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담과 함께 필요시 연계기관에 연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 숙제가 생겼음. 범죄피해자상담소와 다르게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고민이 생김. 이제까지는 분노하고 억울하기만 했는데. 문제제기가 와 닿음
- 결국은 돈 문제인 것 같음. 지원받으며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 같음
- 우리한테는 있지만, 외부인이나 피해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됨, 외부 사람들도 지원받는 피해자에게도 이 얘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함
-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리, 접근성도 중요함
- 지금쯤은 우리도 각자 상담소만 생각하지 말고, 통합이나 통합지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음. 우리가 상버만 하고 있나, 진짜 피해자 지원을 잘 하고 있나. 성찰 필요한 때(섭섭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지원의 폭을 넓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됨. 내꺼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음
- 현재 체계안에서 피해자를 구분하게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게 됨

1) “범죄 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 우리가 활동가보다 사회복지사 같다 하더라도 GO 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NGO 다.
-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
- 면접 상담 시작할 때 우리는 여성단체라고 밝힘. 피해자의 잘못이나 못남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시작함
-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도록 함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 청소년 성매매를 성매매만 보지 않고 다른 삶의 조건들(학업, 가정, 학원, 진로, 당면 문제)을 보면서 지원, 상담

- 여기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원
- 연계, 연대하는 것이 통합이다
- 범죄피해자로서의(고소한 사람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로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중복피해, 폭력의 연속선을 고민하면서 통합적 지원

선언 :

-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전 생애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여성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

※ 손필기 촬영본을 텍스트로 옮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조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진행/기록/발표 : 무진/선미/호랑 (모둠 9명)

1) “범죄 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선언 :

- 우리는 구조적 폭력에 주목하고 세상과 제도를 바꾸는 피해지원이 우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진 지금까지처럼 연결된 제도에 갇히지 않는 피해지원을 하겠다

9 조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진행/기록/발표 : 경임/단비/선영 (모둠 10 명)

- 1) “범죄 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 사회복지적 지원 : 제도안에서 한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음
 - 사회복지적 지원은 서비스 수혜자 제공자이고 수동적, 활동가는 함께 한다는 연대. 전문성은 함께 하고자 하는 집중하는 것
 - 사회복지적 지원 : 정해진 틀안에 있는 사람들, 낙인일 수 있고, 한계짓는 것.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중복보장 안됨. 활동가는? 모든 여성, 대상자 폭넓게 봄. 자격과 관련없이 참음
 - 사회복지자는 형식적이고 매뉴얼에 따름. 활동가는 형식적이고 매뉴얼에 따르지만, 심리적, 관계적,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연계함
 - 필요한 부분만 사례관리하지만, 활동가는 자립적으로 자조적인 삶을 추구.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
 -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과 주변환경과 관련된 제도변화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 함께 하는 동행의 의미
 - 편견에 대한 넓은 시선, 피해자지지
 -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 역량강화, 차별성을 우리가 만들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것
 - 환경, 제도 바꾸는 행동을 가시화하는 것, 신념
 -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변화, 함께 함
 - 보호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게 사회복지적 관점. 구조 시스템이 한정적임

-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 우리 이미 통합이다
 - 성폭과 가폭을 통합한다고? 왜 통합일까? 이미 하고 있는데. 정부의 통제수단, 인구소멸이면 가폭이 축소되니까? 예산 등 관리 편하게 효율성 추구
 - 통합이라는 명칭만 듣고 피해자가 기대하지 않을까?
 - 전문적인 곳을 찾아가고 싶을 것 같다. 내담자의 문제를 폭넓게 해결해준다는 기대
 - 중복되고 다중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는 기대. 통합에 연계할 때의 기대이기는 하지만 모두 해줄 수 있는 자원과 인력 부족함. 피해자 혼선 생기고 피로도 높아짐
 - 해바라기, 원스톱 같은 통합 상담을 떠올리지 않을까?
 - 내담자 입장에서 자신이 호소하는 문제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 우려할 것 같고 신뢰 떨어질 것 같음

선언 :

- 우리는 틀에 박힌 통합을 거부한다
- 우리의 전문성과 차별성은 틀에 갇혀있지 않다

※ 손필기 촬영본을 텍스트로 옮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조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진행/기록/발표 : 한지/그레이/바람 (모듬 6명)

- 1) “범죄 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선언 :

-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통합주도를 주목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 우리는 함께 작년과는 또 다른 행보를 만들며 성장하고 연대하겠다

11 조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진행/기록/발표 : 옹이/지영/햇살 (모듬 9 명)

1) “범죄 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 여성의 전화의 방향성 :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지원.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더 만들어가야 한다.
- 여성주의 상담, 우리만의 전문성 : 교육과 수퍼비전이 도움이 된다. 사례회의와 교육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 > 범죄 피해자를 따라갈 수 없다. 피해자가 규명되지 않았다. 상담센터의 위상이 떨어진 상황. 지속성 결여, 당사자성이 확정되지 않음
- 상담원의 역량강화
- 타이틀의 차별성 > 범죄에 대한 해석, 밀착지원, 법률지원 다수, 사례발굴 작업
- 경험에 대한 재해석으로 내담자 발굴
-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역량강화, 의식향상 교육 (타 사회복지사와의 차별성)
- 피해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피해자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 시스템의 원스톱
- 피해 당사자 상황에 맞게(가폭, 성폭) > 피해자마다 원하는 통합 지원이 다르다
- 행정 지원 > 실적을 위한 지원, 시스템 일원화

선언 :

- 우리는 생존자를 위해 피해를 재해석하고 지원하는, 전문적인 통합에 주목한다
- 통합 이름으로 행정 편의적, 내용절감을 위한 감축에 반대하며 연대한다

※ 손필기 촬영본을 텍스트로 옮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조 지금 이곳, '통합' 정국과 방향 모색

진행/기록/발표 : 바다/창녕상담소/하늘

- 1) “범죄 피해자” 지원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다른 우리 현장의 차별성,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 차별성, 전문성은 어떻게 갖추는가?
- 2)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합 지원’은 어떤 모습일까?

선언 :

- 우리는 지금 이곳, 통합정국과 방향을 모색하며 우리가 연결된 큰걸음 활동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연대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성평등한 사회, 전문성을 갖는 활동을 하겠다

13 조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진행/기록/발표 : 선희/의로/하늘 (모듬 9명)

1) 성평등 현장활동을 기반으로:복합차별(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고민과 역량은 무엇일까?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시, 도로 수요조사 중. 통합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층위에서 나누어짐. 현장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원조정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장애, 이주 등 지원해보니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같이 경험하면서 배우기도 함. 전문성에 대한 역량 (당사자에 대한 것들이 다름)을 키워야 하고, 매뉴얼들이 준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피해자 중심이 아님).
- 통합의 정의가 중요. 장애의 경우 상담을 통합을 한다는 건지 이런 정의가 안 된 상황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피해자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사건화 된 것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진술을 인정받기 어려움. 피해자의 양상이 다른 부분-트라우마, 경제적 지원등. 피해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가? 활동가들의 생존만 이야기해서는 안 됨. 대구 지역은 해바라기센터 위기, 아동 두곳인데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 통합된다고 좋아하는 곳도 있지만 5개 상담소는 국비지원 삭감된 곳도 있음. 여가부 폐지와 상관없이 해야하는 일이 있음.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 활동가가 안 했던 부분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함.
- 통합이 원스톱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긴장되고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체화되는 것도 필요함. 이런 통합 시스템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모든 곳이 존폐의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함. 분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함.
-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을 거 같음. 역량 강화해야하고 처우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정도 단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 필요. 가폭, 성폭력, 아동학대 등 한 가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 전문화 (역량강화)도 필요함. 자격취득 등.
- 한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여성, 성소수자 등. 정부가 하는 것은 효율성만으로만 관리하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통합은 반대. 복합차별 사례 지원할 때 상담기술의 전문성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절차의 고민이 아님 현장에서 사례를 나누는 것은 필요함. 같은 쟁점과 고민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동료슈퍼비전 등 실시.
- 통합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름. 정부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통합을 얘기하고 있음. 청소년, 장애, 성폭력, 가정폭력 등 교차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의 통합이 있는 필요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금 있는 기관들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른데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 성폭, 가폭 등 행정구조로 나누어도 같이 팀별로 나누어 하면 되는 것 아닌지? 통합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음.
- 한 면으로 보면 기능적 좋아보임. 현장 편익적? 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많음 이주+장애여성의 경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도 장애여성만 상담하지 않음. 이미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연계, 자문 등 통합적 지원의 자원을 찾으려고 함. 피해자에게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 / 정부의 성평등 정책 예산 삭감. 이 예산을 줄이고 상담소를 만드는 상황. 예산 총액은 똑같음. 성평등

제도를 삭제하고 통합이라고 말했을 때, 통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음. 교차적인 기능을 확대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됨. 역량은 기능적인 부분은 아님. 이주여성이라서 장애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가 중요함.

- 인구 등 지역적으로 고민해야하는 부분도 있음.
-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활동중. 예전엔 이런 시설도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열심히 토론하는 것도 필요. 피해자중심으로 논의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 이것을 같이 지켜나가는 방향성을 같이 가져나가면 어떨지.

2) 복합차별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 이 정부가 성차별, 성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함. 필요한 교육 예산 등 확보하는 것 필요.
- 젠더폭력에 있어서 장애, 이주 등 통합이 되어있을 때 배제되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할지.
- 어느정도 상담소가 예방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실적으로 평가만 하지 않는 것 필요.
- 지자체별로 예산 다름. 농인 분 사례. 수어통역사를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님. 상담은 신뢰의 영역. 의료비-여가부 지침은 없음. 우리가 요구했음. 이미 어떤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 통역비 만만치 않음. 예산이 있어야 함. 통역비가 지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주여성상담소도 있지 않느냐?) 있으나. 국적은 몽골분. 농인의 정체성. 국제 수어, 몽골 수어. 교차적인 문제. (다누리로 전화하면 통역을 해줌. 예산 확보해야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 예산으로 무료로 할 수 있음.) 이번에 수어 통역 예산은 삭감되었음. 통역사들의 처우도 좋지 않음. (이주 여성분들 심리 상담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쉽지 않음.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없음.)
- 피해 상황에 노출되기 원하지 않으시기도 함. 국가는 시스템을 마련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약이 많음. 국가는 위에서 하면 되지 라고 말하기 때문. 의도가 다름. 정말 원하는 통합이었다면 인원 감축은 안 해야되는 것.
- 국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자원 조사 욕구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함. 온라인 플랫폼 기능도 중요함. 대면 상담 전에 비대면으로.
- 디지털 부분은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중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함.

선언 :

-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효율성 중심의 '기능적' 통합에 반대하며, 현장 주도의 인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로 끝까지 투쟁하겠다!

14 조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진행/기록/발표 : 닷솔/라다/서하

- 1) 성평등 현장활동을 기반으로 : 복합차별(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고민과 역량은 무엇일까?
- 2) 복합차별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쿼어, 장애인 성폭력은 다루기 두려울때가 있다, 하지만 지원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 작년 통합 상담소로 지원했지만 자꾸 떨어졌었다, 통합이 안되면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곳으로 가야하는 일이 생겨 혼란스러웠고 성폭 전문인 기관에서 가폭을 받는 것 역시 의문이 들었다.
 - 이미 상담소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가가 원하는 것과 다를 뿐이다
 - 성폭상담소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 주변 지역에서 내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받았다.
 - 성폭 가폭 지원체계가 다른것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 이미 통합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로 인해 지원이 나뉘어지고 있다, 건수가 너무 많아 자원상담사가 있음에도 소진이 많이 되는 상황, 오는 내담자를 성폭,가폭으로 가려 받을 수가 없다.
 - 성폭력 상담소임에도 가폭이 많다, 의료지원은 함께 처리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관한다.
 - 현재 상담소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아 통합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원금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일자리 고용 불안 뿐만 아니라 운동 자체가 탄압 받는 느낌이다.
 - 성매매쪽에서 일하고 있다, 보호법안에 자활부터 상담이 모두 들어있어 초창기부터 통합처럼 지원하고 있다.
 - 이미 다층적, 교차,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력체계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한다.
 - 전국에 통합지원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드물지 않나?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과적 역량보다는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 통합상담소로 지원하면서 기관에 부족한 역량을 알게 되었다, 필요한 부분은 전문화된 기관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누구의 관점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통합은 우리 상담소에서 주도해야한다.
 - 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 좋은 기억이 있다, 보조금의 문제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 기관별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선언 :

-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피해 유형을 넘어서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 우리는 함께 네트워킹과 연대로 서로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

15 조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에 맞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쟁점 - 성평등, 복합차별, 전문성

진행/기록/발표 : 정자/베리/바다 (모둠 9명)

- 1) 성평등 현장활동을 기반으로 : 복합차별(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고민과 역량은 무엇일까?
 - 통합되면 지원의 차이가 있을까?
 - 19년부터 통합상담소였다. 하지만 그 전에도 통합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보조금 지원여부 차이인 것이지 지원하는 피해의 차이는 없다. 이름만 바뀐 것이다. 따라서 복합피해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다. 성폭, 가폭, 스토킹 등등 다 지원해왔을 것인데, 복합피해일 경우 의료비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합하면 좋을 것 같다.
 - 원치않은 통합이 지행이 된 곳이다. 가폭지원상담기관이었고, 성폭 담당하는 분이 들어왔다. 성폭 피해를 처음 진행했을 때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람들이 같이 (성폭 피해지원하는 분과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는 장면이 있었다.
 - 통합이 진행되지 않은 곳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은 한 명이 총원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전문가가 다양하면 좋겠지만, 기관별 통합을 진행한다고 전문성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 취약의 고리에 있는 내담자가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돼야 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 취약한 환경(경제, 환경, 인적자원 등)에 노출된 사람은 계속 다른 피해가 반복되고는 한다. 내담자가 상담지원 이후에 있어서 다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질 것인데, 이를 보고 있는 것이 무력해질 때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돼야 진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경제적) 효율중심적으로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돼야 한다. 성매매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통합할지가 고민이다. 젠더기반 통합이라는 맥락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각 단위간의 연결망을 찾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취약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또한.
 - 기관 간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 사례관리 역시 행정적인 것으로 포함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유형별, 기관별 합침으로만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피해자분이 피해 이후에 발생하는 차별(직장 내 성폭력 이후에 직장을 잃고 인적/재정적 자원을 잃은 상황)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이다.
 - 각 상담소들에서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이 작아지면서 인적자원도 적어지고 법인의 방향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 2) 복합차별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 정부는 복합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는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방향이 없어보인다.
 - 현장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다. 대외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통합 논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분야별로 따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통합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
- 피해자보호라는 것을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종 피해자 보호법을 다 통합하는 것이다.
- 정부가 좋아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다.
- 정부에서 통합에 대한 생각을 함께 논의하며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괜찮았을 것 같다.
- 그럼에도 각자의 전문성이 있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각 감수성이 달라서 피해자가 상처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통합은 반대다.
-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각 상담소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불안함을 가중시켜서 운동성을 잃게하려는 시도 그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선언 :

- 우리는 기관과 기관의 통합이 아닌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정책과 제도 변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대한다

16 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진행/기록/발표 : 설희/설희/시반 (모둠 8 명)

- 1) ‘젠더화’된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앞으로 페미니스트들이 포착해나갔으면 하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은 무엇일까?
- 2) 성평등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까?

선언 :

-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온라인 공간 속 윤리의식 고취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적극적으로 배우고 개입하며 활동가로서 개인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에 제도화 및 기술개선 등을 요구하겠다.

17 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진행/기록/발표 : 정래/은영(은별)/지니 (모둠 7명)

- 1) ‘젠더화’된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앞으로 페미니스트들이 포착해나갔으면 하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은 무엇일까?
 - 사이버성폭력 지원 경험의 어려움과 한계점 나눔
 - 합성된 사진의 삭제 지원 어려움
 -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그루밍 → 마약과 성매매로 연결됨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버린 사진과 영상 (핸드폰 A/S 를 맡기거나 기기를 판매한 이후 핸드폰에 갖고 있던 성관계 영상과 사진 유포)
 - 수사기관의 무지함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이해 부족, 해외 사이트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잡으려고 하기보다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고 단정짓는 태도)
 -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인지의 어려움 (활동가의 연령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의 한계를 느낌 → 어떤 공간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이뤄지는지 배움이 필요함)

- 2) 성평등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까?

- 1. 사이버 상에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듯 :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사이버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 어떤 형태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등.
- 2. 랜덤채팅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 필요 : 외로움을 느끼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랜덤채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랜덤채팅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부모가 자녀를 교육 할 때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랜덤채팅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서 채팅을 이용해야 한다’를 가르쳐야 함. (부모교육의 중요성)
- 3. 예방 교육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성인, 부모 대상)
 - 세대가 함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교육 필요
 -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한)
 -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돔사용, 피임, 성매매 예방 교육’ 의무화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방관하는 느낌 / 성교육에 대해 방어적인 학부모의 태도에 변화 필요 / 성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 학교에 콘돔 비치 필요)

선언 :

- 우리는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노력은 해보겠다!
- (사이버성폭력을 통해 퍼져가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 사건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싸울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18 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진행/기록/발표 : 루나/선행/우라쟁이 (모듬 7 명)

- 1) '젠더화'된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앞으로 페미니스트들이 포착해나갔으면 하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사이버 공간은 무엇일까?
 - '젠더화'된 디지털 기술 : 딥페이크, AI, 합성어플, 메타버스, VR 을 이용한 넷상 그루밍 범죄 (but) 통매음으로만 처벌되는 현실
 - 딥페이크 합성 어플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장난으로 음란물 합성으로 이어지는 현실
 - VR 아바타 간의 성폭력 가해/피해
 - 유튜브/쇼츠에서 여성의 성적 실천은 노란 딱지 but 남성들의 여성혐오발언은 아무런 제재없이 이뤄짐
 - 여성 성착취 여성을 공유하는 플랫폼, 여성이 업로드하면 비난받고, 남성이 업로드하면 제재 x, 온리팬즈.
 - 르노자동차 광고 사건, '집계손' 여론몰이
 - '지인능욕' : 온라인 성적 괴롭힘, 모욕 대화방 (ex)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 여성 N 번방?, 나경원 등 정치인의 대응
 - 남성의 표현에는 제약이 없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은 현실

- 2) 성평등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까?
 - 예방교육 시행 :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 인식 전파, 정규 교육 과목으로 편성, 아동청소년, 성인대상 모두 교육 필요
 - 관련 정책 법 제개정, 처벌 강화 요구
 - 행위자 교육 의무화
 - 관련 단체 기관 간 사례 공유 및 연대

선언 :

- 우리는 사이버성폭력 처벌 강화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19 조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진행/기록/발표: 은영/은진/현진 (모듬 9 명)

0) 내가 이 모듬에 온 이유

- 우리 여성문제에 매몰되어 환경문제에 관심 갖기 힘들고 정책 토론회에 관련 주제도 다루고 있고 이 기회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함.
- 기후위기 관심이 많음. 우리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꼭 집어 궁금.
- 자연 생물 관심 많고 일하는 곳이 자활센터라 자연친화적인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 평소 관심 분야, 친환경적인 실천 고민
- 토론을 해봤더니 배워가는 것이 많아,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페미라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페미니스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지구랑 페미 연결
- 상담소 스태디하며 환경문제,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었고(재생산, 돌봄, 동물권) 홀라를 추며 자연과 함께 화합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 녹색연합 회원으로 활동하며 환경에 관심을 가짐. 성소수자 옹호하듯 자연도 약자라는 생각, 함께 화합하는 방법 추구
- 환경에 관심 갖고 소소하게 실천하는데 활동하며 현수막 등 쓰레기들을 생산하며 문제의식을 갖게 됨.
- 동물권에 관심.
-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덥고, 내 체력은 계속 더워지고 내 일상과 기후위기를 활동하며 어떻게 해내갈까 고민되어 옴. 지구를 구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등 고민.

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운동과 기후위기 문제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 연대감과 자매애,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천 감각. 피해자...빈곤 노동자층, 활동가인 우리도 일상이 망가지고, 빈곤한 노동자 폭력피해자는 일상이 깨짐으로 인해 이러한 지구환경이라던지 제로웨이스트적 살기 어려울 것. 실천적 가치 불편함 감수, 빠름 보다 느림. 나눔보다 느림.. 어렵다. 폭력피해자들과 어떻게 나눠가야 할지 어렵다. 부르주아 운동처럼 되지 않길.
- 기후위기 문제, 취약계층, 지적장애 주거환경 생활 환경. 안정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싶음. 장애여성분들에게 간식드리기 위해 가방 챙겨오라 하는데 그렇지 못함.. 결국 비닐을 챙기게 되고.
- 자립 적립금을 모아 생활하는 분들에게 환경문제 관련 생활양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는 못하니 건강문제라 연관지어 설득을 해봄.(레토르트를 너무 먹으면 몸에 해롭다.)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도 연관성을 갖게 된다. 나은 환경을 보고 관련성을 찾다.
- 자본과 생산위주 사회인지라...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이 본인 피해상담보다는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인지 함께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졌다.(사건지원만 원하고 상담(내면돌봄)은 경제활동 뒤로 밀리는..) 운동 관련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소비되고 대상화되는가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랑 닮았다 봄. 우리가 환경문제에서 소나 소우유 닭(알) 그 객체가 아니라 도구로

취급되는 것 등...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존중 못 받고 대상화되는 것은 지구가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여성단체로서 환경관련 정책활동에도 관심 가질 필요 느낌.

- 아직 활동과 연관 짓기 어려움. 장미 나눠주는 운동?!
- 저출산 관련 환경문제 생각하면 사람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음.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란 생각이 들기도 했음. 비혼 여성이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저출생을 가족 울타리에서가 아닌 새로운 개선 필요
- 동물권, 약자연대, 여성운동 결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 여성들... 쉼터생활 지원 딜레마. 한정된 예산으로 장 볼 때 채식 보다 고기를 줘야하는 등 내 개인 뿐 아니라 우리 문제가 이리 관련 있는 줄 몰랐음. 오늘 들으며 많이 배움.
- 친환경 종이컵을 쉼터생활인들에게 드렸을 때 더 찾게 되었다. 반려동물의 동물권 등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얘기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좋았는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고민을 함께 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음.
- 재활센터라... 소창, 삼베 등 함께 많이 만들고 언니들에게 설명하여 제로웨이스트 제품 사용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제품 만들. 언니들 일회용품 사용 줄이게 권함. 병뚜껑 모아 작품 만드는 체험. 운동화 끈 자투리 천 활용해서 제품 만들.

2)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경험 공유하기(비건,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 망원동 알맹상점(제로웨이스트 기반 제품 구매) 시장에서 일회용품 말고 식기 사용,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가? 짐이(무게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기도 함. 텀블러, 옷, 책(도서관) 실천보다 불편감을 감수하기에 대한 어려움. 제안하기에 어려움. 완전히 실행하기 어려움.
- 죄책감 가지지 말자 생각하면서 드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 1인 가구. 먹을만큼의 소비, 남기지 않는 음식 집중. 최대한 줄이고 오래 쓸 수 있는...오래 쓸 수 있는 것들 고민. 뜨개질. 풀어서 다시 뜰 수 있고.. 순환되도록. 유연한 채식. 고도로 발달한 거지와 환경 운동가는 구분하기 어려워서 내가 거지인가 싶기도 함.
- 음식 먹는 건 완벽하게 못해도 유연하게 하고 있음. 제로 웨이스트가 부족하다. 동물권에 대한 연대 직관적임. 재생산관련 관심.
- 홍보 굿즈가 예쁜 쓰레기가 되니까 디지털 굿즈를 제작. 브리타 정수기. 옷을 사지 않고 입는 것.
- 구제샵, 아름다운 가게, 복사용지 재생용지 구입(75그램 얇아서 잘 걸리지만...) 재생휴지, 홍보물품 담당이라 제로웨이스트 샵.(대나무 칫솔)
- 텀블러, 장바구니, 세제 리필용, 라벨지 없는 생수
- 완전 이분법적 실천(한다 안한다)은 무리한 운동이니까, 과도기적인 실천. 비건은 무리인지라 고기양을 줄이고 채소량을 늘리는 정도로 줄여가다보니 확실히 전보다 덜 먹고 안 원하게 됨. 옷 소비 줄이기. 책 도서관에서 빌려보기. 웬만하면 집에서는 집밥 해먹기. 재생산 관련 몸 문제 나누기. 훌라 추며 자연을 나눔. 등산하며 쓰레기 줍기, 갯벌정화, 관련 책 팟캐스트, 사무실 환경의날(일회용 없기)
- 쓰레기 줄이기. 배달음식 안 시키기, 가방에는 물통, 장바구니,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산행, 트래킹 쓰레기 봉투들고 가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자연에 흩어지지 않게! 위생봉투 사용 어떻게 줄일지 요즘 고민 중. 그룹홈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룹홈 친구들 일회용 사용이 많아 어떻게 줄일지.

- 앞에 많이 나왔듯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가능. 그렇지 못할 때 불편한 마음. 가족들과 장을 볼 때 플라스틱 비닐. 포장 안된 것 찾기.
-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게 작은 변화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 스위스에 분리수거 쓰레기통: 우리가 기업이나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에 이런 것, 전시
- 우리의 환경운동 실천 1 번은 요구하는 것.
- 비닐포장에 대한 항의를 해도 한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음. 조직의 힘이 필요
- 그래서 녹색연합 활동하여 청원에 동의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요구하는 권리가 있음.

선언:

-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시민으로서 기후위기 문제 개선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우리 지구환경을 지키는 나비효과를 부르는 날개짓을 하겠다!

20 조 페미니스트가 지구를 구한다

진행/기록/발표: 도담/숨/난나 (모듬 9명)

0) 내가 이 모듬에 온 이유

-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주제, 문제의식은 있지만 특별히 실천하는 것은 없어서 지혜를 얻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 지구에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 지구의 판단에 의해 인류가 생존하지 못하는 미래가 올 것, 하지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에서 실천은 필요하다고 생각. 가폭 활동 하며 토대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생각. 개인적 욕구와 호기심과 소비가 환경과 배치될 때 딜레마를 느낌, 그래서 퇴직하면 옷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생각.
- 사실 별 관심 없었는데 최근 폭우가 쏟아지고 기후 변화를 겪으며 경각심 많아짐.
- 생선을 좋아하는데 바다쓰레기 문제 심각한 것 보며, 스티로폼 등이 생명들에 쌓이고 우리 몸에도 쌓이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함.
- 비건 지향 활동가들과 함께 지내며 평소에 음식이나 일상을 함께 하는데 불편한 사회를 보며 생각해보게 됨.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다른 방식의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후위기와 여성운동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생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제저항적인 부분에서 기후위기 운동은 소수자운동, 여성운동과 만나야 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
- 환경문제가 개인이나 실체적인 파국을 느끼게 하고 있음.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별도의 분야라고 생각했으나, 신자유주의 안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인류의 침탈 과정에서 기업자본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며, 남성중심 문화 안에서 투쟁하는 여성운동의 역할이 생태에 대한 반제국주의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겠다는 생각.
- 2020년 즈음, 비건 시작. 워낙 관심 있던 주제였으나, 여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 시작함. 에코 페미니즘이 기후 위기 극복에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 실천 중임.
- 제일 관심 있는 주제, 나 개인으로 보면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위기라는 생각, 잘 선택했다.
-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을 읽고 실천 시작함. 전 지구적 위기를 모두가 체감하는 이 시기, 나부터 실천하고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
- 환경을 착취하는 방식과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운동과 기후위기 문제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 가폭 활동 중 : 기후위기가 심각할 수록 가폭 피해자 늘어난다는 기사, 기후위기 가속화되면 불황과 불안한 주거환경 늘고, 가부장제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에게 영향. 기후위기에서 자원배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 펼쳐지면 더욱 위기가 올 것. 기후위기 극복하려면 현재 자본주의에서 양극화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음. 자본주의 안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일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 성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극복의 삼각형.

- 코로나 팬데믹 때 쉼터 활동. 시설 거주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입소가 지연되고 다양한 폭력 문제에서 위기 개입을 더디게 함.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에 당장 지장이 있음.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못했다.
- 장애인 성폭 활동가 : 반지하에 살던 내담자의 생활환경이 위험한 상황임이 더욱 불안해짐.
- 생활시설 : 확진자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지자체 지침이 없었음. 자체 지침으로 해결하며 생존자와 함께 생활할 방법을 개척함. 초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개척하고 만들어낸 여성주의적 지침들은 있지만 구조적인 시스템이 잘 따라줘야 함. 거대한 성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처럼.
-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에 대한 위기, 범죄적 존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없었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낙인 안에서 생존은 더욱 위협적이었음. 60대 이상의 쪽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어떤 체계에서 벌어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중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제지가 모순이 있다. 북반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 많은 남반구 국가들에 비해 현재에도 더 많은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남반구에 대해 제지하기 전에 선진국들의 파격적인 환경 정책이 필요함.
- 기업과 국가의 환경 정책은 지속가능한가. 지표들을 통해 건강한 소비를 위해 기업 선택 가능해진 부분도 있음. 시시각각 환경 파괴적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음. 우리의 실천이 영향을 미칠 것.
- 가폭 활동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사적인 공간에 갇혀버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더욱 밀접해지고 신고하기 어려워지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생각함.
- 장애인 성폭력 : 사건이 여러 개 있어도 한 건만 올리게 하는 지자체. 사례관리기관인지 위기 개입 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기도 한다.
- 영화 가버나움 꼭 보시다.

2)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경험 공유하기(비건,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 민우회 : 지역 업소들과 계약 하고 후원 행사함, 제로 웨이스트 실천. 금지에 대한 거부감 대신 소비에 대해서라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함.
- 손수건, 자전거 걸기 등. 환경 관련 정책 및 정당 지지, 하나의 후원 문자를 보내더라도 기후 관련 내용을 넣어서 이슈를 공유함.
- 정책과 정당에 대한 지지, 작은 실천들. 배달 시킬 때라도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생활 실천 중. 친환경 기업에 대한 관심.
- 미니멀라이프 실천하는 지인이 실천하는 자연적인 식생활과 소비 절감 등 생태주의적 대안들을 닮고 싶음. 그러한 실천가들을 자주 만난다.
- 비건지향 중. 제로웨이스트 사용 중. 자전거나 도보 이동. 기후정의 실천하려는 정당이나 정책들 지지. 그린워싱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계와 분별 감수성 필요. 불매운동도 포함. 기업윤리 중요. 여러분 비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동물 착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육류는 없음. 비건친구들을 늘리고 있음.
- 미래 인류학자가 보기에 지금의 현재를 닮아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생각할지도.

- 소비 줄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결심하고 가게 됨.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됨.
- 너무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나약하게 느껴지고 실천들은 미약하게 느껴져서 힘이 빠질 때가 있음.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함.
- 일회용품 덜 쓰고 건강을 더 생각했는데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해야겠음. 동물 생명에 대한 고민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고기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젠더적 관점이 충격적이고 와닿았다.
- 아파트 생활 중, 쓰레기 방대한 양 목격. 실천을 한다고 하지만 소비를 더욱 줄여봐야겠다는 생각.

선언:

- 우리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겨난 전지구적 위기이며 성평등 없는 기후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비건을 지향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정치와 제도의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

21 조 이주여성, 차별의 경계를 넘어

진행/기록/발표: 여름/오후네시/진선 (모듬 8 명)

1) 이주여성의 직업 안정과 완전한 노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우선, 이주여성은 체류기간, 비자코드 확인필요
- 직업을 갖고 사회통합교육을 받는 것 중요
- 불법체류여도 면제되는 경우는 피해 당하는 경우 등
- 체류권 보장 중요
- 최대한 인권보호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정보전달이 필요
- 동포법에 의한 동포들은 인권교육이 없고 취약함.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 이주민들의 건강권이 차별적으로 적용. 건강보험증이 19 세 ~35 세까지 발급. 이외에는 건강지원이 없다.

2) 미등록이주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 중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
- 양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어필해야 함.
- 인지청구를 통해 남편에게 자녀 등록할 수 있음.
- 난민신청해도 인도적 체류 외에 어렵다. 난민의 적극적 보호와 관심 필요.
- 난민가족 아이는 우리나라 출생해도 국적은 어렵다. 국제아동권리협약으로 학업(의무교육)가능. 초록우산 재단에서 아동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함께 보면 좋을 영화: 이주여성이 주인공인 영화 <이곳,너머>, 독일출생 튀르키예 이주여성 <그녀가 떠날때>, 그 외 적극추천 영화 <가버나움>

선언:

- 이주여성의 직업 안정과 안전한 노동을 위해 안전한 체류,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 미등록이주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는 복합적이며 법적, 사회적, 국제적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미등록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보다 안전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22 조 이주여성, 차별의 경계를 넘어

진행/기록/발표: 수빈/지니/혜정 (모듬 10 명)

1) 이주여성의 직업 안정과 완전한 노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안정된 노동을 위해서 언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력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안전과 관련되는데 있어 중요해 보인다.
- 비닐하우스 사례를 보면 일/주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민은 이 문제로 다치는 경우를 실제로 보았다.
- 이주민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고 이주 당사자이다. 언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 개인적으로 선주민, 이주민 차별이 중요하다. 나만 갖고 있는 편견/기준을 고용 현장에서 무시 못한다. 이 부분은 채용과 관련된다.
- 직장 비자, 학생 비자 등 체류 유형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고 노동할 수 있다. 결국 일(노동)은 '생존<생계<일상유지(안정)'이다.
- 우리나라의 주요 이주민 노동에서 있는 문제는 임금착취,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이 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일하는 건데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만연하다.
- 한국말을 잘 한다는 칭찬조차 편견, 차별이 될 수 있었다.
- 백인 가정은 다문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동남아, 흑인의 경우가 다문화로 불린다. 이것은 차별이다.
- '차별, 편견'의 영향으로 임금의 차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불이행이 있다. 주로 이주민들에게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법적으로 구제받기도 어렵다. 또, 미등록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출입국에 신고할지 신고하지 않는지 신경써야 한다.
- 반면 최근 정부는 사업장 변경, 지역이동 제한을 두어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상 노예처럼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 선주민과 동일한 사업장 변경 권리를 주어야 한다.
- 여전히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
- 미등록 이전에 임금체불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 노동착취로부터 노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기본법이 위반되는 문제이다.
- 사업주들의 도덕적, 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적, 법적 제재가 많이 필요하다.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도 노동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예를 들어, 만약 1 천만원의 체불액이 있다면 500 만원 정도로 합의된다. 결국 사업주는 신고를 해도 1 천만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득이다.
- 한국 정부의 정책 자체가 차별적이다. 비자, 언어 정책과 규제가 '개인(공무원)의 선'에 달렸다. 이 부분은 개인의 선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인데 말이다. 차별 없는 노동 정책, 관리 감독 완화, 공무원&사업주의 차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예를 들면 출입국사무소의 경우에서 불공평함을 느낀다, 이주민을 대할 때 불친절하고 (선주민을 대할 때와 이주민을 대할 때) 차별적이다. 또, 담당 공무원(실무자) 재량권이 큰데, 재량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가 많다. 이 문제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안정성과 연결된다. (현 정책인 공무원들의 '개인의 선'에 맡기지 않고) 이주 노동자들의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주요정리) 직업 안정은 생계, 생존과 관련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직업 안정을 이끌 수 있다. 주제에 제시된 "완전한 노동"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완전한 노동이란 안전한 노동을 말하는 것 같다. 현재 이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주요 문제로 임금체불, 임금착취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미약하여 사업주들의 처벌이 아주 미약하다. 대개 공무원들에 의해 합의가 종용되고 있으며, 이 문제적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미등록 노동자 문제, 사업장 변경 불가 문제가 있다.
- 이주 노동권 보장은 최소 선주민과 동일하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켜 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
- 공무원, 사업주 차별인식 개선도 해야 한다. 차별적인 이주 노동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2) 미등록이주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민 얼마나 있다? 출입국사무소 통계가 그나마 근접하다. 출산에 있어서 문제는 출산 후 아동이 등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주여성 체류권이 있어도 자녀가 미등록인 경우도 있다. 또, 국적이 없는 이주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등록/미등록으로 나뉜다. 또 아버지의 체류 자격(이나 한국인 남성/외국인 남성)에 따라 아이 출생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국에 출생신고가 먼저 되어야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본국의 법에 따라 우리나라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 달라진다.
- 아동의 권리(생명권, 학대, 의료, 교육...)를 침해하는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도, 이주여성 아동의 출생신고, 등록이 보장되어야 한다.
- 한국의 민족주의, 혈통주의로 인한 정책도 문제이다. 한국 혈통 아이만 우대해주고 있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미등록 여성 출산의 경우는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정부 NGO 로 지원을 받고 있다.
- 지원 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인증은 주민번호(등록번호)가 아닌 여권 번호로 바뀌어야 한다. (신용카드, 핸드폰)
- 무등록 상태의 아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다.

선언:

- 우리는 차별 없는 노동정책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주여성의 노동권이 안정되는 날까지 연대하겠다.
- 우리는 있지만 없는 이주여성과 아동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주민 배제 없는 보편적 출산 정책이 되도록 연대한다.

23 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조이/사랑/정윤 (모둠 8 명)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과거에서 현재 나를 통해 어려운 친구(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들을 도와주면서 그 친구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일을 하면서 힐링을 받고 있음
-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보다는 함께 서로 도움을 받는 것
- 나를 위해 책을 읽거나 나를 위한 시간(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 좋음)을 갖는다. 틈틈이 메모를 기록하는 것이 힐링
- 집에 혼자 있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함/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혼자서 하는 활동을 함(차를 타고 외곽으로 가서 산책,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
- 친구들과 여행계획이 있더라도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를 여유 있게 한 번 돌아보는 것, 새로운 곳에 대한 힐링(점.선.면 여행). 몰랐던 곳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힐링. 마음에 맞는 친구(나와 코드가 맞는 친구와 함께)
-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 시간이 맞으면 아침부터 함께 모여서 술과 함께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냄.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독서모임을 하면서 각자의 삶과 생활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냄
- 일과 내 삶을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분리된 시간에 최대한 잘 놀가-관람, 술자리, 여행 등등)
-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책을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 혼자 떠난 여행
-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즐기는 나만의 사우나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 이 일을 해 나아가면서, 좀 더 공부하는 이 일이 어렵지만 이 일 자체가 힐링이기에 지속적으로 할 것
- 자연인!!
- 상담카페 (가볍게 커피 마시면서, 관련 책을 보기도 하고, 뭔가를 끄적이고 나오기도 하고, 인생상담도 하고)
- 전세계 놀이동산 가는 것(모든 놀이기구 타는 것)
- 산티아고

선언:

- 우리는 나를 찾기 위해 나 자신에 주목한다.
-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를 단단히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24 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이제/경덕/명은 (모둠 8 명)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 딸이 셋, 첫째, 누군가를 항상 챙겨야했음. 근래 갱년기, 한계가 와서 힘들다고 느낌. 내가 왜 이럴까 싶어서 생각하면 체력의 한계인 것 같아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음. 근래 캘리, 좋은 글을 쓰니 좋음. 평소 좋아하는 음악듣기. 가까운 후배 집에서 시간 보내고 옴. 맛있는 것 먹고 함.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힐링됨.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음.
- 29살 힘든 일을 경험함. 새로운 직장과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많이 지쳐 있었음. 그러던 중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고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아 산을 다니고 있음. 등산, 예쁜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여행도 마찬가지. 요즘 들어 하는 생각은 일상에서 마음가짐에 따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음. 최근 새로운 취미를 찾음.(캘리)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음. 하지만 정신적인 자유가 진정한 소진예방이 아닐까? 여러 상황에서 유연해질 수 있는, 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딜 가든 사람이 있어 그 자체가 힘들.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함. 혼자 치맥과 숲 그 자체에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음. 또 춤을 배워보고 싶음. 아직은 하지 못함.
- 사소한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임. 이용자들이 아침에 오면 행복하지만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소진, 일과 나의 일상 분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음. 특히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소 후 깨끗해진 집을 볼 때 행복함.
- 나만의 방법이 있음. 종교생활, 너무 잘 맞고 좋음. 새벽기도 가는 것이 좋음. 말씀 듣고 내뱉고. 휴가 때 정말 나를 위한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냄.
- 소속기관에서 1년에 4번 소진 예방하고 있지만 일과 뗄 수 없는 시간, 힐링이 없는 느낌, 그 순간에 있어 더 그런 느낌. 자연을 좋아함. 힐링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 아직은 찾아 나가는 중.
- 생각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게임
- 행정업무, 진상 이용자로 피폐해지는 나를 볼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일상이 반복되니 어려움. 동료 중에 사진을 보내 준 것에 "나는 공주다, 내 삶이 지루해 잠시 세상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마인드 컨트롤 효과가 있는 것 같음. 뇌가 단순하여 긍정적인 보고, 말하고 쓰면, 긍정적인 일이 생김
-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 많이 노력함. 관계를 잘 가꾸려 함. 온전한 나만의 저녁 시간. 운동, 아무 생각 안함.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 시간과 돈이 없어도 일년에 1-2번 정도 정해두고 움직여야겠다.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 나이가 들면 동년배 상담을 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게 꿈이다.
- 너무 혼자 살고 싶음. 돈, 육아,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나 자체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 비혼인 친구들과 같이 모여 사는 것, 집을 지어 각자 호수에서 살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거나 여행 가거나. 가뿐하게
- 여기 살아도 좋겠다. 물 맑고 공기 깨끗한 곳에서. 작고 예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경제적인 것을 위해 심야식당 1-2 테이블만 예약 받아 운영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
- 좀 아웃!!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고 싶음. 아직 미래의 삶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다양한 삶을 유연하고 싶음.
- 시골집을 기도원으로 꾸며 필요한 사람들이 쉬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고 싶음. 새로운 취미를 찾아 볼까도 생각함.
- 새로운 취미/심심하지 않게 살고 싶음. 너무 가까운 관계가 아닌 오고 가며 인사하며 지낼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고 싶음(의지하고 싶지 않음). 홀로서기.
- 일을 안 하면 불안함. 잘 못 쉬는 사람임. 나이가 들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아무 것도 안하고 싶음. 편안한 것을 찾고 여유를 가지고 싶음. 음식도 남이 해주는 것 먹고 싶음.
- 마당 있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며 여유를 누리고 싶음.

선언:

- 우리는 공주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상황을 초월하겠다!

25 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은숙/조율/나무 (모둠 9 명)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 공부(박사논문, 석사, 모래놀이 상담), 운동(헬스, 등산 등), 주말농장, 여가시간 보내기(TV 시청), 여행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 심리상담사, 프리랜서, 건강한 삶
- 건강하게 정년까지
- 인터넷 쇼핑물 준비
- 비혼여성 공동체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고 싶음

선언:

-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너의 꿈을 지지하겠다.

26 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양순/솔빛/은소 (모듬 9 명)

-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선언:

- 우리는 소진예방을 love myself 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겠다

27 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수영/민지/이음 (모듬 10 명)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 일할 때 성격은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 내향적이다. 소진이 오니 내담자의 말도 들리지 않고 말 자체를 하기가 싫어졌다. 우연히 방문한 LP 카페에서 제주 오름을 보며 음악을 듣는 경험을 하였고 그것이 힐링스팟이자 아지트가 되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 코로나 시기에 등산을 시작했고, 자연관람과 신체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힐링이 됐다. 상담을 오래 하다보니 2-3 년에 한 번씩 번아웃이 온다. 내담자들에게 받는 상처도 컸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해? 하는 생각들도 든다. 그럴 때마다 등산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아지트로 삼게 되었다. 등산은 관절에 무리가 되어서 최근 관절에 부하를 덜 주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셔플 댄스를 배우고 있다. 등산을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댄스를 힐링 아지트로 삼아볼까 한다.
- 내향적인 성격인데 일할 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하기에 퇴근 후에는 반려묘들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고 있다. 활동가로 일하는 데에는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지하던 활동가들이 퇴사하며 소진이 가속된 부분이 있다. 퇴사한 활동가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놀러다니는 것을 마음의 아지트로 삼고 있다.
-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페디큐어를 받고 일년 치 요가를 한 번에 등록해 미루기를 막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요가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고 힘을 쓰는 운동이니 추천드린다. 마지막으로 목욕탕에서 세신하기! 처음에는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세신사님의 지시에 따라 몸을 척척 돌리곤 한다.
- 내향적인 편이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동굴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루틴을 2~3 년 정도 지속하니 신체적으로도 컨디션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최근 어깨부상으로 쉬던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한다. 공을 쳐낼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게 하니 업무 이후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게 되었다.
- 고령 이주 여성들을 지원 하는 업무 특성 상 전염이 걱정되어 코로나 기간 내내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많아 만나지 못 했다.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 먹기,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하기를 힐링아지트로 삼고 있다.
- 작년부터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다. 전국의 휴양림을 방문해 트래킹을 하는 것이다. 평일에 가면 한산해서 더 좋다. 한 달에 한 번, 최소 세 달에 두 번은 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혼자서도 트래킹을 즐기고 있다.
- 활동가로 전직 후 여유 있는 삶을 잃었다. 매일 사람 대하는 일을 하다보니 외향인인데도 힘이 든다. 인간에게 위로 받는 것보다 자연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순간이 늘었다. 최근엔 캠핑을 즐기고 있고 차를 구매해 퇴사로부터 다섯 걸음 멀어졌으며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 친구, 근육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참고해 퍼스널 트레이닝을 등록했다. 목표는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일을 하는 동안 기분이 좋은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 취미가 많은 편이고 대부분 손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다. 코로나 시기와 퇴사시기가 겹쳐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갖은 취미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행복했다. 최근엔 재봉틀을 구매했다.

- 취업을 하면서 생활반경이 완전히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습사원이라 일이 회사 밖으로도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그것들 떨쳐내기를 일순위로 삼고 있다. 주말에는 본가에 내려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관람, 운동, 게임을 하며 머리 속을 환기 중이다.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 은퇴까지 4-5년 남은 듯하고 몇 년 전부터 계획 세우는 중이다. 근무 중에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은퇴 후에는 꾸준히 교회에 나가 새벽기도를 할 것이다. 우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댄스, 등산을 취미활동으로 두고 여행을 다닐 것이다.
- 은퇴 이후의 삶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고, 내년을 기점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어 퇴사 이후의 삶만 생각해봤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연극 소모임 단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그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고, 개인사업을 계획 중이다. 은퇴, 퇴사 관련해서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활동가들과 행복하게 활동가 생활을 마무리하며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먼저 떠나서. 퇴사 이후 삶에 집중하고 있다.
- 아직 고민해보지 않았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그 시기가 오면 고민하려고 했다. 오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얻어야겠다.
-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 고민해보지 않았다. 힘들면 막연히 퇴사하고 싶어! 여행 가야겠어! 라는 생각 정도만 했다.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언어적으로 준비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부딪히고 익히며 먼 지역, 먼 나라 장기여행을 하고 유명 관광지가 아닌 작은 마을 같은 곳 위주로 거주를 해보고 싶다. 20대 때에는 남프랑스 작은 마을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최근 패키지로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는 철회했다. 현재는 이탈리아에 가고 싶다.
- 은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퇴사를 한다면 이주 노동자 통역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 현재는 이주 여성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은 해결이 되는 것이 가시적이고 고무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하는 업무와 다른 영역에 내가 가진 자원을 써보고 싶다.
- 명예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만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운전 스트레스가 없는 편이고, 집보다 차를 더 좋아한다. 스테레오 장비를 구비한 차를 타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편하게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은 시간이 날 때 잠깐 다녀오지만 은퇴 이후엔 특정 지역을 정해서 (제주 트래킹처럼)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그 지역을 돌고 싶다.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 내년에 상담대학원 들어갈 생각이다. 상담자격증 취득 후에는 조직에서 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고 은퇴, 퇴사 후에는 성매매 상담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
- 은퇴하고 무엇을 할 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퇴사를 한다면 취미를 발전시켜서 관련 업으로 취업을 할 생각도 있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단체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 활동 두 달 차 신입활동가에게는 은퇴도 퇴사도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진다. 이상적으로 적당히 준비된 경제기반 위에서 도시와 가까운 전원에서 나의 지지체계들과 함께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보내고 싶다.
- 작년 소진 이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2층 건물주가 되고 싶다. 여태까지 제주도 안에서만 살아서 은퇴 이후에는 체코 혹은 스위스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싶고

돌아와서는 미술치료 공부를 할까 한다. 은퇴 이후에도 프리랜서 치료사로 일하고 싶다

선언:

- 우리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자기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한달에 한번 이상은 오롯이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

28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티제이/썩/진솔 (모듬 9명)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선언:

- 우리는 소진 예방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나만의 공간,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면서 앞으로도 끝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9 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행/기록/발표: 요니/하늘/아무 (모둠 10 명)

1) 나만의 힐링이 있다면? (소진예방을 위한 나만의 아지트 만들기)

- 목적 중심의 삶.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소한 목적으로 시작하여 쉽터에서 생활인과 잘 지내기. 잘 보여주기. 생활인들이 잘 지내고, 극복해서 돌아올 때. 힘든 일을 하면서 분출할 수 있는 드라마 보기, 운동을 하면서 나만의 힘을 찾는다.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할 때 힘들고 무기력감 느낌.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함. 힐링포인트는 독서.
- 상담소 10 년차. 힘들 때 그때그때 해소하려고 노력함. 운동으로 해소하거나 찜질방 이용. 어느 날 내가 뭘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몰랐음. 다른 좋아하는 것을 찾는 중이다.
- 계획하지 않은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맛집, 여행지 검색하는 것이 좋았었는데 이 기분을 느끼는 것이 좋아 여행을 좋아하게 됨.
- 몇 년 전부터 여행을 준비하고 다니며, 몸과 마음 쉬는 시간을 가지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
- 나에게 쓰는 시간이 좋음. 혼자만의 목욕탕 방문. 혼자 생각하고 쓸 수 있어서 좋음.
- 작년에는 적응하기 바쁨. 2 년차가 되니 나를 돌아보게 되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음. 생각해보니 서울 이외 가본 곳이 없었음. 주변부터 돌아보고 여행하면서 힐링하고 있음.
- 수능 1 등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것처럼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10 년차 이후 총괄하는 상황이 되니 힘들어짐. 하지만 재미없는 날은 없었고, 버텨야지 하는 생각이 많았음. 10 년 이상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캠핑도 가고, 내가 하는 일을 토닥토닥해줄 수 있는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위로됨. 10 년까지 버티고 힘든 활동가들에게 어떻게 버텼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것이 도움이 된 것처럼 나만의 버티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음.
- 아직 1 년이 안 되었고, 자기돌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 나만의 아지트는 베란다. 가정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주는 힘.
- 5 년에 한번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을 이용하여 2 주씩 여행을 다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좋음. 현재 3 번째 안식년. 동료들과 안식년을 즐기는 것도 좋음. 나만의 힐링을 동료 활동가와 함께 함. 활동가와 함께 하는 힐링이어서 뜻 깊음. 조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베란다(별칭 카페), 조그만 농장(정원)이 나의 힐링할 수 있는 아지트임. 신입활동가 들어오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잘 맞는 사람들은 '같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생김.
- 다른 기관에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데 서로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와 잘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었음.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내가 계획하거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삶은?

-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실감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막 달리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유롭게 여행도 하고 멍도 때리고 나만 생각하고 싶음.

-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뭘 잘 할 수 있을지도 찾고 있고 많은 고민 중에 있음. 아직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음.
-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것은 없었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맞춰서 사는 편임. 지금 나보다는 배우자의 퇴직이 가까워 그 부분을 더 생각하게 됨. 은퇴 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음.
- 뭔가를 해야 하는 성격이라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지 고민 중.
- 은퇴 의미가 실감이 안 남. 1차 은퇴는 아이 독립하는 것. 여성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 흘러가는 듯이 머리를 안 쓰고 살고 싶음.
- 은퇴를 준비하는 중. 50대 이지만 80대 요니를 부양 중. 하루 만 보씩 걷기 3월부터 시작 중. 경제적 독립이 성평등이라 생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 중. 내가 앞만 보고 달렸더니 60이 되었던라. 부동산, 재테크 공부도 하고 있음. 페미 놀이터를 만들고 싶음. 우리나라가 성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즐길 수 있는 페미놀이터를 기획하고 만들려고 꿈꾸고 있음. 재미있게 놀자. 어떻게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고민이고 지금도 실천 중임.
- 경제적인 것이 제일 걱정. 부동산, 재테크 관심이 있지만, 잘 모르겠고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함.
- 아직은 멀었고 다가오지 않음. 일찍 준비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함. 열심히 달리다가 실 때 올 현타가 걱정됨. 은퇴 후 함께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고민됨.
- 선배님들이 다 퇴직하고 내가 선배가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바꾸어서 내가 지키고 싶고,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했음. 끈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끈대가 안 되도록 이직을 준비하고 있음. 내가 끈대가 되었다고 인지할 때까지 힘들었음.
- 작년에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많이 불안했는데 오늘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해짐. 은퇴 후, 지금부터 쌓아가는 커리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야할 것 같음.

선언:

- 우리는 활동을 즐겁게 지속하기 위해서 그 동기가 나로부터 있음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페미 놀이터 안에서 즐겁게 놀겠다.

30 조 지역 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진행/기록/발표: 혜연/지율/세은 (모듬 8 명)

0) 내가 이 모듬에 온 이유

- 본인이 고른 주제는 아니지만 용인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
- 인구밀집지역이 각각 떨어져 있으며 지역마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 다름. 마을 상권에 맞는 전략 고민됨.
- 광주광역시 출생정책이 대상의 초점을 못 맞추는 것 같음. 다른 시에 비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림.
- 지역여성 조직화에 관심. 다른 지역의 이야기 듣고 싶었음. 활동가가 아닌 여성 만나고 싶었음.
- 속초는 퇴직 후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여성 모으기 힘들. 사건 관련해서도 직장인만 상담. 가정주부는 안 옴. 활동가 모으기가 쉽지 않음, 교육대상자 또한 부족.초고령사회로 산부인과도 사라짐, 산후조리 서비스 올해부터 중단. 출산율 매우 낮음
- 지역 여성 연령별 전략, 고민
- 서울 경기지역에만 있다보니 다른 지역의 어려움이나 지역별 특성에 대한 궁금증.

1) 지역여성운동 관련 의견교환

- 속초에서는 여협, YMCA 등 여성 관련 일거리 받음. 여협 종사자 평균 50-60 대, YMCA 활동가들은 60 대 후반. 대학교 2 군데가 사라지며 젊은 사람이 줄어듦. 고등학생은 활동자체가 어려움. 결국 청년, 학생 없이 시니어중심으로 굴러감. 어르신들은 정말 많지만 주 대상으로 하자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하여 공략에 어려움. 그래도 도 단위로 결집은 잘 되는 편
- 용인 조직 네트워크 특성으로 트레이지만 상담소 1 가쪽 1 각 1 개로 씬터는 같이 사용. 가치관이 달라서 단합이 안되며 조직적 네트워크 어려움(이슈가 있을 때 의견일치가 안됨) 장애, 시니어 단체도 따로 활동하는 분위기. 토착민 위주로 보수적인 분위기이고 서로 아는 사이기 때문에 성범죄 신고율 낮음. 범죄율로 보면, 안전한 도시이지만 실상은 아닐 것이라 예상함.
- 대전 선배활동가들이 터전을 잘 만들어 놓아 이슈가 있으면 집결이 빠름. 하지만 새로운 조직화보다는 정체된 느낌. 근무 외 활동에 눈치 보임(법원 앞 1 인 시위에 나갈 경우 지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근무 외로 나가거나 마스크 착용 권유)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 성문화센터는 보수단체가 담당하며 교육청은 성교육도서 폐기함.
- 목표: 전남쪽은 각종 이슈에 대해 적극적 진행가능. 젠더이슈 적극적 (정치인 관련 성범죄 적극적 대응) 그런데 정권이 바뀌며 달라진 것은 확실히 있음. 통합이 우리끼리의 밥그릇싸움이 되어 버림. 지역화사업 고민. 젊은 나이대 중심으로 모임을 모집해보았으나 저조함.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이용률이 높았으나 스펙용으로 이용됨, 참여 목적이 활동가나 지역운동이 아니었음. 페미니스트 강좌는 코로나 이후 더 쉽지 않음. 그래도 전남 연대 잘되는 편.
- 광주: 인권, 민주 중요하지만 여성은 중심이슈 아님. 무언가 이슈가 생긴다면 간담회부터 해야함. (어떤 상황인지 세심하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8 개 단체 중심으로 굴러가며 오래된 활동가 많음. 그러나 운동성이 메말라간다는 고민이 있고 이를 전체와 공유하기엔 소진이 큼. 같이 공부하려는

조직 구성. 동구민 힐링프로그램은 신선. 한 사람 한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 세상을 보는 폭이 넓어짐. 단체 활동가 외의 어디선가 존재하는 사람들을 찾고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낌. 외부에서 바라본 조직은 어떤가 확인이 필요함.

- 서울 성북구는 일반시민대상으로 청년참여프로그램으로 서로 교류하며 여기서 생긴 인연, 성북시민들이 집결지 아웃리치 참여에서 법인 여름캠프(1박2일 성매매, 반성매매관련 교육) 참여로 이어짐. 다음 회기에도 참여한다는 의견 많았고 시민과의 연결 중요함. 이전의 단체, 소모임 구성 방식은 한계가 있음.

2) 지역여성조직화 -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한 ()%,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 인터넷(지역이 아닌 전국단위의 필드). 이유: 활동가 외의 관심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함. 호소력 있는 콘텐츠 제작 필요. 흥미 있어 할 요소를 결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 (ex.)강간죄개정연대-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3) 인구소멸 속 지역여성을 조직화하려면 주 대상을 누구로 정해야 할까?

- 연대체, 지역만으로는 한계를 느낌. 자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함. 활동가만 만나다 보니 대중강의에서 페미니스트가 생각보다 많지만,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은 어려워함. 이런 사람들을 공략해야 함.
- 고령화가 빠른 지역에서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역프로그램이 이미 많음.
-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목표: 노인층 대상으로 통념퀴즈 -홍보물제공. 노인복지관 수업 강의평가 안 좋았으나 그들의 인식을 알 수 있어야 다음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 (보수적인 어른들께 성인식, 경계가 낯선 개념) 생활 속에서의 강의프로그램 진행

선언:

- 우리는 예비 페미니스트를 발굴하기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개발에 주목한다. 행동하지 않는 페미니스트에게 닿는 콘텐츠를 만든다.
- 우리는 누구나 움직일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곳곳에 숨어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움직이겠다.

31 조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진행/기록/발표: 진아/조이/수수 (모듬 9 명)

1) 지역여성조직화 -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한 ()%,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2) 인구소멸 속 지역여성을 조직화하려면 주 대상을 누구로 정해야 할까?

선언:

- 우리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적 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대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지역에서 청년층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정부 보조금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가 되겠다!

32 조 지역여성운동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진행/기록/발표: 현선/영아/윤희 (모듬 8 명)

1) 지역여성조직화 -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한 ()%,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2) 인구소멸 속 지역여성을 조직화하려면 주 대상을 누구로 정해야 할까?

선언:

- 우리는 각 지역의 현장 상황에 맞는 조직화방법(소모임, 각 지역연대체와의 협력 등)을 발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역의 여성운동을 확산시키겠다.
- 우리는 함께 어떤 외압에도 뺏기지 않는 풀뿌리 연대를 하겠다!

33 조 통폐합 정국에서 쉼터운동의 비전

진행/기록/발표: 은혜/산들/여름 (모듬 11 명)

1) 쉼터가 안전한 환경과 인권보장 환경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 1인 1실 확보(공간확보): 국가 책임 늘려야 함.
- 휴대폰 사용: 제도 보완
- 비밀 전학: 제도 보완. 담당 학교의 인권 감수성 키워야 함.
- 쉼터만의 특수성 개발
-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시설 고민(공개? 비공개?, 개별 공간? 공용 공간?)

2) 쉼터의 위기 요인은 무엇일까?

- 입소자 감소
- 범피, 통합 솔루션 등 쉼터 기능과 중복되는 기관 많아짐(기능만 유사하고 여성주의 의식은 없음)
- 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꼭 필요한 입소자 올 수 있도록 쉼터 홍보
- 다양한 고민 필요(개별 맞춤)

선언:

- 우리는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서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겠다.

34 조 통폐합 정국에서 쉼터운동의 비전

진행/기록/발표: 미영/현진/도도 (모듬 12 명)

1) 쉼터가 안전한 환경과 인권보장 환경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2) 쉼터의 위기 요인은 무엇일까?

- 4 층 빌라 280 평. 가족보호시설.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담 호소. 취사원 지원 필요. 시에서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으니 통폐합에 대한 거래 개념으로라도 요청해야 함. 통폐합에 대응해 지킬 것, 양보할 것에 대해 논의되어야 함.
- 개인공간, 취사원 필요. 외부 외식문화 발달.
- 수급/비수급을 나누는 것.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지원을 잘 받지 못함.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함.
- 2011 년 전에 생계비 지원이 안 됐는데 이후, 수급/비수급 조건으로 지원이 되었음. 비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없는데 의료비 예산이 제한적이기에 개인 의료보험으로 먼 지역에서 진료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통합 찬반 주장 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야 함.
- 지역별 상황에 기반해 통합 논리를 해야 함. 그에 대한 대안이 우리 자체에서 주장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데 통합이 아닌, 기본적인 열악함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응이 어렵다.
- 그만큼 열악하고 현실이 이렇다는 것.
- 성매매, 성폭, 가폭 통합 시 성매매 여성이 배제가 됨. 자활작업장에도 성매매 여성은 출석률이 떨어지니 잘 안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성매매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피해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원해야 한다.
-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잘 할 수 있는지보다 “정원 대비 입소율 향상 필요” 논리를 가지고 옴. 우리 지원은 365 일 24 시간 1 명이든, 10 명이든 똑같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
- 가정폭력 사례 오지만, 다른 문제도 많아서 “기타상담”으로 체크되는 경우 많음. 물리적 축소는 곤란하다는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함.
- 인당 6.5㎡라는 물리적 환경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입소율”, “실집행률”얘기를 하는 상황. 우리 쉼터의 특성이 다름을 강조하는 논리 만들어 나갈 필요 있음. 쉼터 별 특성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안전 문제 중시하는 곳, 정신적 문제 중시하는 곳 다를 것 같다.
- 보호하는 shelter 의 역할과 자립, 생활이 중요한 역할 분리하면 주장할 수 있겠다.
- 우리와 여성가족부 모두 이해하겠지만, 기재부에서 여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함. 효율, 수치, “입소율”만 따지며 수긍하지 않는다.
- 여성가족부는 힘이 없음. 우리가 의견 제시해야 함. 최저의 것만 쉼터에서 제공되는데 입소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상태. 입소자들은 입소 후 실망. 예산, 열악한 환경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유지할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함. 불편하니 입소율이 낮은 것. 그러므로 shelter 로의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 최근 가정폭력 24 개월로 연장에 대한 의견 조사함. 무슨 의미지? 정부 측에 “긴급”인식이 없나?
- 추가 12 월은 필요한 사람에게.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은 거의 해줄 거고, 판단을 위해 시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문제. (2011년에 사복시 하는 것도 치열하게 했음.)
- 시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 shelter 정체성이 시설 정체성으로 넘어가게 됨.
- 기관별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걸 무시하고 통폐합 하려는 것이 문제. 통폐합은 안 된다고 본다. 한 시설에서 다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됨. 성과를 물리적으로 내는 것도 쉽지 않다.
- 보통 중앙 센터를 만들고 현장에서 줄어든 TO 를 나누다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통폐합하게 될 것임. 현장 내에서 갈라치기 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야 할까? 우리 기관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함.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 논의해야 함.
- 질적 평가, 지표를 되려 요청해서 보여줄 필요성 있음.
- 100 점이 나올 수 없는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 평가 기준이 “평균 보호 인원”인 것을 바꿔야 함.
- 현장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듯함.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7,8 월 서울에 원스톱 센터 개관한다고 함. 부산 이젠 센터, 이미 기존 기관들이 워낙 잘하고 있었기에 인프라 없는 신규 센터는 기존 기관에 도움 요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 협력 요청하고 있음. 서울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기본 마인드가 피해자 지원 중심이 아니라 실적 중심이다 보니 잘 안 될 것 같다.
- 현장과 무관한 통폐합은 반대한다.

선언:

- 우리는 현장을 무시한 통폐합은 또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함께 피해자를 위한 현장을 사수하겠다.

35 조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진행/기록/발표: 미르/수진(공)/솔 (모듬 6 명)

- 1) 성매매는 나(우리)의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 성산업의 확산, 성구매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선언:

- 우리는 성매매는 우리의 운동에 씨 뿌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36 조 나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진행/기록/발표: 정미/연수/은진 (모둠 12 명)

1) 성매매는 나(우리)의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2) 성산업의 확산, 성구매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선언:

- 우리는 성구매자 처벌 강화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주목한다.
- 우리는 함께 성구매자를 연구하고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추적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를 끝장내겠다.

여성폭력대응활동가 전국워크숍 선언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에 주목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전생애'에 주목한다.
우리는 피해자를 권리주체로서 생각한다.

우리는 현장을 무시한 통폐합은 또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효율성 중심의 '기능적' 통합에 반대하며, 현장 주도의 인권적 통합이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통합주도를 주목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존자를 위해 피해를 재해석하고 지원하는 전문적 통합에 주목한다.
우리는 구조적 폭력에 주목하고 세상과 제도를 바꾸는 피해지원이 우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전문성과 차별성은 틀에 갇혀있지 않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피해유형을 넘어서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사이버성폭력 처벌강화에 주목한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피해자보호와 지원, 온라인공간 속 윤리의식 고취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구매자처벌강화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주목한다

우리는 성매매는 우리의 운동에 씨뿌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없는 노동정책에 주목한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 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는 복합적이며 법적, 사회적, 국제적 협력이 조화롭게 이뤄질때 미등록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안에서 생겨난 전지구적 위기이며 성평등없는 기후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시민으로서 기후위기문제개선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적 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대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지역에서 청년층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 지역의 현장 상황에 맞는 조직화방법(소모임, 각 지역연대체와의 협력 등)을 발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역의 여성운동을 확산시키겠다.

우리는 _예비페미니스트를 발굴하기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개발에 주목한다. 행동하지 않는 페미니스트에 닿는 콘텐츠를 만든다."

우리는 활동을 즐겁게 지속하기 위해서 그 동기가 나로부터 있음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자기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진예방을 love myself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우리는 공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진 예방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나만의 공간,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를 찾기위해 나 자신에 주목한다.

주목하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활동가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느리지만 계속 변화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지금 우리의 존재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행동한다

우리는 틀에 박힌 통합을 거부한다.

우리는 함께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어진 지금처럼 연결된 제도에 갇히지 않는 피해지원을 하겠다.

우리는 함께 정부 보조금이 흔들리지 않는 주체가 되겠다.

우리는 함께 통합의 이름으로 행정편의적,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의 감축에 반대하는 이슈파이팅을 하겠다.

우리는 함께 작년과는 또다른 행보를 만들며 성장하고 연대하겠다.

우리는 함께 법제도에 매몰되지 않고 피해자 관점으로 변화를 만들겠다

우리는 백래시 정치에 맞서는 활동을 하겠다.

우리는 함께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피해자와 연대하겠다

우리는 이주여성의 노동권이 안정되는 날까지 연대하겠다.

우리는 이주민 배제 없는 보편적 출산정책이 되도록 연대한다.

우리는 함께 성구매자를 연구하고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추적하고 시민들과 성매매를 끝장내겠다.

우리는 함께 우리 지구환경을 지키는 나비효과를 부르는 날갯짓을 하겠다.

우리는 비건을 지향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정치와 제도의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함께 적극적으로 배우고 개입하며 활동가로서 개인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에 제도화, 기술개선들을 요구하겠다.

우리는 누구나 움직일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페미니스트들을 움직이겠다.

우리는 후진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활동은 후지지 않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를 단단히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네트워킹과 연대로 서로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

우리는 함께 끈질긴 생명력으로 계속 요구하며 연대하겠다.

우리는 한달에 한번 이상은 오롯이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겠다.

우리는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겠다.

우리는 함께 너의 꿈을 지지하겠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겠다.

(다함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다

2024. 7. 3.

여성폭력대응활동가 전국워크숍 참여자 일동

준비팀 진행 과정

No	일시	내용	참석
0	11/27	여성폭력 대응 현장활동가 전국 워크숍 진행 논의 -> 협의회별 참여 가능여부 의사타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1	1/18	워크숍 규모 파악을 위한 설문 진행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참여단체
2	3/7	[전체 회의] ○ 안건 - 예상 참여 인원 - 장소 - 프로그램 기획 - 역할분담 관련 등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3	3/14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업수행안내 회의	한국여성의전화
4	3/26	[전체 회의] ○ 안건 - 장소 및 프로그램 - 장소 - 참가 신청 - 역할 분담 - 기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5	4/15	[프로그램팀 기획 회의] ○ 안건 - 세부 프로그램 기획 - 참가 신청 설문 - 답사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6	4/22	[전체 회의] ○ 안건 - 프로그램 최종안 - 기조 발제 주제 및 발제자 - 스태프 역할 - 추후 일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7	4/30	[기념품 및 후원 담당 회의] ○ 안건 - 기념품 및 후원 - 프로그램 진행 관련 - 기타 논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8	5/3	한국여성재단 중간 워크숍	한국여성의전화
9	5/16	현장 답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10	5/22	[답사팀 회의] ○ 안건 - 스태프 운영 및 역할 - 교통 수단 - 장소 셋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11	5/31	[전체 회의] ○ 안건 - 세부 진행 계획 - 사전 스태프 역할 및 운영 계획 -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기타	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12	6/21	[기조 발제자 회의] ○ 안건 - 세부 진행 안내 - 주제별 내용 구성 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13	6/24	[5분스피치 발표자 회의] ○ 안건 - 이그나이트 프리젠테이션 방식 진행 안내 - 주제별 내용 구성 공유 - 질의응답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 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준비팀

소속	성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신지영, 이하영
장애여성공감	나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산옥, 김양순, 박희숙, 안경옥, 유재순, 진양희, 윤정숙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곽혜전, 양정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혜란, 연주, 윤애란, 최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레드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 이태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유랑, 최란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송란희, 최나눔, 최유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현장스텝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감복지협회 부설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 다힘상담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자활센터 해봄,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월계우리통합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선호, 영미, 오매, 소영, 예림, 예술, 인성, 지영, 경옥, 보름, 소희, 호정, 다인, 은겸, 태희, 하영, 지수, 연주, 양희, 나눔, 란, 유연, 현진

장소배치도

전체 지도



세부 지도



비상연락망

구분	세부 내용
<p>오픈채팅방</p>	<p>https://open.kakao.com/o/guBOXcyg (참여코드: *****) ※ 입장시 프로필명 이름_단체명으로 입장</p> <div data-bbox="517 568 762 808" style="text-align: center;">  </div>
<p>비상약</p>	<p>D 동(고려) 391 호</p>
<p>무주보건의료원</p>	<p>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연락처: 063-320-8322</p>

<여성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1 박 2 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연대의 장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오픈채팅방 또는 hotline@hotline.or.kr 로 문의해주세요.

※ 사진 및 영상 업로드 및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5kvepB3KMjzunwNwSJulvz4yJpbcsnr?usp=sharing>

※ 참가비, 교통비 영수증은 워크숍 자료집에 포함되어 배부되었습니다.

※ 현장 자료집 편집 _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hotline@hotline.or.kr)

※ 사후 자료집 편집 _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ksvrc@sisters.or.kr)